CR 2012-01

CEO
Report

FY2012 수입보험료 전망

2012. 8

동향분석실

KiRi 보험연구원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CEO Report는 보험산업과 관련된 현안과제를 집중 분석하여, 보험회사 최고경영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되었습니다.

목 차

요 약 ····· 1

Ⅰ. 전망 배경 ····· 10

Ⅱ. 실물경제·금융환경 ····· 12

1. 세계경제 ····· 12
2. 국내실물경제 ····· 20
3. 국내금융시장 ····· 23

Ⅲ. 국내보험시장 ····· 26

1. 주요지표 ····· 26
2. 생명보험 ····· 27
3. 손해보험 ····· 36

Ⅳ. 보험회사 경영과제 ····· 48

1. 개인연금 급성장에 따른 리스크 관리 ····· 48
2. 사전예방 중심의 보험사기 관리 ····· 49
3. 저금리 대응 강화 ····· 50
4.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노력 ····· 51

요 약

1. 국내외 경제환경

〈세계경제〉

■ 2012년 세계경제는 유로존 재정위기가 확산되는 가운데 실물경제에 본격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에 따라 2011년보다 0.4%p 낮은 3.5% 성장(IMF 전망)할 것으로 보임.

○ 선진국의 경우 유로지역이 마이너스 성장하고, 미국의 경기회복 모멘텀이 약화되면서 2011년보다 0.2%p 낮은 1.4%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신흥국 경제는 유로존 재정위기로 대외부문의 어려움이 예상되나 경기부양 효과와 원유 및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에 힘입어 2011년에 비해 0.6%p 하락한 5.6% 성장할 것으로 보임.

○ 2011년 말 당시 2012년 세계경제는 상저하고의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하반기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또한 다양한 경기하방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어 세계경제의 추가적인 성장률 하락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경기하방 리스크 요인으로 유로존 재정위기 악화, 미국의 재정절벽, 중국경제의 경착륙 등을 꼽을 수 있음.

○ 이러한 경기하방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세계경제는 더블딥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 보임.

〈국내 실물경제〉

■ 2012년 국내경제는 대외여건 악화로 인한 수출 증가율 둔화, 국내외 경기상황에 대한 불확실성 확대로 인한 소비, 투자 부진 등으로 2011년보다 0.9%p 낮은 2.7%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국내경제는 수출과 내수 모두 부진해지면서 2012년 상반기 실질 GDP 성장률이 2.6%로 하락함.

○ 대외여건 악화, 가계부채 문제 현실화,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하반기 성장률 회복이 쉽지 않아 보임.

○ 서비스업 취업자 수 증가에 힘입어 지표상 실업률과 고용률이 2011년에 비해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이나 고용의 질은 악화되고 있음.

■ 소비자물가는 경제성장률 추락, 국제유가를 비롯한 국제 원자재가격 안정에 힘입어 2011년에 비해 상승률이 크게 하락할 것으로 보임.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경기둔화,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 하락 등에 힘입어 2011년에 비해 1.5%p 하락한 2.5%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

■ 대외여건 악화 및 내수 부진으로 수출입 증가율이 한자리 수로 하락하는 가운데, 경상수지 흑자폭이 2011년에 비해 축소될 전망임.

○ 2011년 상품수출은 주요 수출지역의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2011년 19.7%보다 17.9%p 낮은 1.8% 증가에 그치고, 수입 역시 내수 부진으로 2011년보다 20.4%p 감소한 3.4%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이에 경상수지는 2011년에 비해 72억 8,000만 달러 축소된 192억 3,000만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요약 표 1〉 국내 실물경제 전망

(단위: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F)
실질GDP 성장률	2.3	0.3	6.2	3.6	2.7
(명목GDP)	(5.3)	(3.8)	(10.1)	(5.4)	(4.4)
민간소비	2.0	1.2	3.9	2.3	1.9
건설투자	−2.8	3.4	−1.4	−5.0	1.3
설비투자	−1.0	−9.8	25.0	3.7	5.1
재화수출	4.6	−0.2	15.8	10.5	3.3
재화수입	4.5	−7.8	18.2	8.7	3.2
실업률	3.2	3.6	3.7	3.7	3.6
(고용률)	(59.5)	(58.6)	(58.7)	(59.1)	(60.0)
소비자물가	4.6	2.8	2.9	4.0	2.5
경상수지(억 달러)	31.9	327.9	293.9	265.1	192.3
상품수지(억 달러)	51.7	378.6	419.0	310.0	231.6
상품수출(억 달러)	4,346.5	3,581.9	4,642.9	5,525.6	5,625.1
(증가율)	(13.6)	(−13.9)	(28.3)	(19.7)	(1.8)
상품수입(억 달러)	4,294.8	3,203.2	4,223.8	5,216.1	5,393.5
(증가율)	(22.0)	(−25.8)	(31.6)	(23.8)	(3.4)

주: 2012(F)는 보험연구원 전망치임.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국내금융시장〉

■ 기준금리는 주요국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부담감과 국내 경기부진에 대한 우려로 7월 12일 25bp 인하되었으며, 하반기에도 이러한 금리 인하 기조 내에서 통화정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음.

○ 2012년 7월 중국, ECB 등 주요국들이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였으며, 향후 세계경제 회복이 어렵다는 점에서 글로벌 저금리 기조는 하반기에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 국내 역시 하반기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으며, 국고채(3년 만기)금리도 하반기에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원/달러 환율은 유로존 재정위기 해결 지연으로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2011년 보다 소폭(10원) 절상된 연간 평균 1,130원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유로존 재정위기 해결을 위한 정책공조가 구체화되어 유로화가 상반기 극심한 약세에서 어느 정도 안정될 경우 달러화 가치가 다소 하락할 가능성이 있음.

○ 경상수지 흑자 및 달러화 약세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 등이 하반기 원/달러 환율의 잠재적 하락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2. 보험산업 동향과 전망

〈주요지표〉

■ FY2011 보험산업은 생명보험의 저축성보험과 손해보험의 장기보험을 중심으로 10.2% 성장하였으나, FY2012에는 경제여건 악화로 인해 7.3% 성장이 전망됨.

○ FY2012 보험침투도(수입보험료/경상GDP)는 FY2011 11.9%에 비해 소폭 상승한 12.4%를 기록하겠으며, 총자산은 11.0% 증가한 653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생명보험〉

■ FY2011 생명보험은 개인보험과 단체보험 모두 5%대의 성장세를 보인 가운데,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2.1%p 낮은 5.8% 성장에 그침.

■ FY2012에는 경제성장률 추가 하락으로 보험수요 위축이 예상되나 시장금리 하락, 연금생명표 개정 등에 따라 생사혼합보험과 생존보험에 대한 수요가 유지되면서 생명보험 전체적으로는 4.7% 성장이 전망됨.

○ 사망보험이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나 경기둔화로 종신보험 수요가 영향을 받으면서 보장성보험의 경우 0.3%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저축성보험은 방카슈랑스를 통한 생사혼합보험의 고성장이 지속되고 보험료 인상 전 생존보험도 고성장하면서 전체적으로 7.0%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시장금리 하락 추세가 지속되면서 생사혼합보험의 금리 경쟁력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
- 변액저축성보험은 최근 불거진 수익률 논란과 주식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수입보험료 증가세가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 FY2012 단체보험은 퇴직연금이 계속보험료 위주의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면서 6.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대기업 퇴직연금 도입률이 84.6%에 달하여 퇴직연금의 추가적인 대규모 신규가입은 제한적일 것이나, 2012년 7월부터 시행된 근퇴법이 퇴직연금시장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손해보험〉

■ FY2011 손해보험은 자동차보험 저성장에도 불구하고 장기손해보험 및 연금부문 호조로 16.7% 성장하였으나 성장률은 전년에 비해 2.5%p 하락함.

■ FY2012에는 장기손해보험의 견조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인해 자동차보험과 일반손해보험의 성장세가 떨어져 11.1%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

○ 장기손해보험은 계속보험료 유입과 금리 경쟁력 유지에 따라 저축성보험 신규 판매 증가 추세가 지속되어 13.3%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상해 및 질병보험은 신규가입 확대요인이 존재하지 않아 계속보험료 유입에 따른 완만한 증가세(8.5%)가 예상됨.

○ 연금부분은 퇴직연금이 신규가입 부진으로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나 개인연금이 고성장을 지속하여 전체적으로 21.5% 증가가 예상됨.

○ 자동차보험의 경우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율 하락과 보험요율 인

하로 인해 증가율이 2.3%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

○ 일반손해보험은 경기 둔화 등 대내외적 리스크요인 증가로 인한 성장동력 약화로 6.9% 증가에 그칠 전망임.

- 특히 적하보험과 선박보험이 세계경제 성장률 하락으로 제한적인 성장에 머물고 해양책임보험이 기저효과로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일반손해보험 중 해상보험의 증가율 감소세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됨.

〈요약 표 2〉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전망

(단위: 억 원, %)

보험종목		FY2009		FY2010		FY2011		FY2012(F)	
		보험료	성장률	보험료	성장률	보험료	성장률	보험료	성장률
생명보험	개인보험	696,551	2.8	757,403	8.7	801,852	5.9	837,976	4.5
	보장성	299,386	−1.8	297,126	−0.8	297,243	0.0	298,283	0.3
	저축성	397,165	6.6	460,277	15.9	504,609	9.6	539,693	7.0
	단체보험	73,017	25.7	72,672	−0.5	76,508	5.3	81,750	6.9
	일반단체	8,921	−16.7	8,205	−8.0	7,955	−3.0	7,815	−1.8
	퇴직보험	31,654	−12.5	18,678	−41.0	1,373	−92.7	0.0	−100.0
	퇴직연금	32,441	189.3	45,789	41.1	67,180	46.7	73,935	10.1
	합계	769,568	4.6	830,074	7.9	878,360	5.8	919,726	4.7
손해보험	장기손보	232,988	23.4	281,813	21.0	341,432	21.2	386,941	13.3
	연금부문	34,641	50.7	53,598	54.7	66,900	24.8	81,317	21.5
	개인연금	17,841	38.8	24,697	38.4	34,273	38.8	46,072	34.4
	퇴직보험	8,680	27.5	5,284	−39.1	835	−84.2	0.0	−100.0
	퇴직연금	8,119	144.4	23,616	190.9	31,791	34.6	35,245	10.9
	자동차	112,224	2.6	124,133	10.6	130,415	5.1	133,422	2.3
	일반손보	58,470	8.7	62,901	7.6	70,901	12.7	75,772	6.9
	화재	2,763	−2.5	2,660	−3.7	2,636	−0.9	2,609	−1.0
	해상	8,049	−5.4	7,721	−4.1	8,699	12.7	8,816	1.3
	보증	12,287	6.6	13,074	6.4	15,172	16.1	16,344	7.7
	특종2)	35,371	14.5	39,446	11.5	44,394	12.5	48,002	8.1
	전체	438,323	16.9	522,444	19.2	609,648	16.7	677,452	11.1

주: 1) 생명보험의 개인보험 각 종목은 변액보험을 포함함.
2) 특종보험에는 해외원보험과 권원보험, 부수사업이 포함됨.

3. 보험회사 경영과제

〈개인연금 급성장에 따른 리스크 관리〉

■ 개인의 장수리스크 증대 및 올해 7월 새로운 경험생명표 적용을 계기로 개인연금 수입보험료가 급증하고 있어 보험회사의 리스크 관리가 필요함.

○ 보험회사는 시중금리보다 높은 공시이율을 제시하고 있으며, 최저이율(예: 10년 이내 2.5%, 10년 후 2.0%)도 보증하기 때문에 금리리스크에 노출됨.

■ 최근 급증하고 있는 즉시연금보험은 일시납 형태로 보험료가 들어오기 때문에 금리 역마진에 대한 우려와 RBC 요구자본 부담이 커서 더욱 정교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함.

〈사전예방 중심의 보험사기 관리〉

■ 보험사기 피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고 소비자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보험사기 관리의 패러다임을 사후적발 방식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보험회사는 상품개발, 판매, 인수심사의 과정에 내재된 보험사기 유발요인을 집중 관리할 필요가 있음.

〈저금리 대응 강화〉

■ 최근 한국은행이 0.25%p의 금리 인하를 전격적으로 단행하였고 향후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어 저금리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다른 한편으로 인플레이션 가능성을 염두에 둘 때,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공통 영역인 실손보험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의료서비스 원가 등이 크게 오를 경우 실손형 생존보장상품의 갱신보험료 급등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연한 상품개발 허용과 더불어 위험관리 프로세스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

〈소비자 신뢰 제고 노력〉

■ 상반기 변액연금 수익률 논쟁을 계기로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도가 급락하여 생명보험시장의 주요 성장축인 변액보험 판매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추정함.

■ 변액보험 소비자에 대한 정보공시와 관련한 개선방안 제시로 논란은 일단락되었으나 변액연금을 포함한 저축성보험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임.

■ 상품의 완전한 판매 및 판매 이후 지속적으로 정확하고 알기 쉬운 정보 제공 등 상품과 관련된 서비스 향상은 물론, 사회적 책임을 적극 이행함으로써 보험회사의 전반적인 이미지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Ⅰ 전망 배경

■ 2012년 들어 스페인마저 재정위기가 발생하는 등 유로존 재정위기가 확대되는 가운데, 실물경제에도 본격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에 따라 전 세계 금융시장이 불안해지고 세계경제 성장률도 예상보다 크게 하락함.

○ 그리스, 스페인 등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유로지역 국가의 경우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고 있고,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선진국 및 신흥국 모두 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낮아짐.

○ 유로존 재정위기 장기화로 당초 예상되었던 하반기 세계경제 회복 전망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 국내경제의 경우 악화되고 있는 대외경제 여건과 수도권 주택시장 침체 속에 가계부채 문제가 현실화되면서 수출 및 내수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세계경제 및 내수 부진으로 수출입 모두 한자리 수로 성장률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설비투자도 회복되지 못함.

○ 가계대출 연체율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고 이에 더해 수도권 부동산 시장 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민간소비도 부진한 모습을 보임.

○ 그나마 소비자물가가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 및 유가 안정 등에 힘입어 안정되는 모습을 보임.

○ 2012년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 재정지출 확대 등 경기부양 정책이 시행되더라도 성장세 회복은 쉽지 않아 보임.

■ 국내 금융시장은 유로존 재정위기 심화, 실물경제 둔화, 안전자산 선호 등에 따라 국고채금리가 하락하고 주식시장 및 외

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됨.

○ 이러한 모습은 2012년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가계부채 문제 심화, 농산물 가격 급등에 따른 기대인플레이션 상승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어 금융시장 불안이 해소되기 어려워 보임.

■ 본고는 이러한 대내외 경제환경 변화를 바탕으로 보험산업 관련 주요 지표를 전망하고, 경영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Ⅱ 실물경제 · 금융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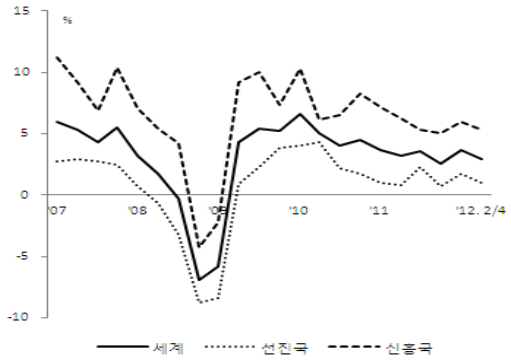
1. 세계경제

■ 2012년 2/4분기 세계경제는 유로존 재정위기 확산, 신흥국의 더딘 경기회복으로 2.9% 성장하여 전분기(3.6%)보다 둔화될 것으로 보임.[1)]

○ 2/4분기 선진국은 유로존 재정위기 확산으로 대내외 부문이 동반 부진하면서 1.0%(전분기대비) 성장에 그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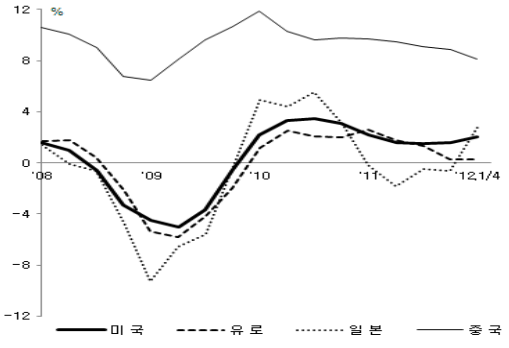
- 미국은 그 동안의 양적완화 정책이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가운데 유로존 재정위기가 확산됨에 따라 소비가 부진해지는 등 경기회복 모멘텀이 약화되어 1/4분기 전분기대비 0.5%의 성장률을 기록함.
- 유로지역의 경우 주변부 국가의 재정위기 심화로 장기대출프로그램(LTRO) 효과가 희석되면서 1/4분기 전분기대비 0.0% 성장하는 등 전분기의 경기침체 국면이 지속됨.

〈그림 Ⅱ-1〉 세계 경제성장률



주: 전분기대비 연율.
자료: IMF(2012. 7),WEO Update.

〈그림 Ⅱ-2〉 주요국 경제성장률



주: 전년동기대비.
자료: 미국상무성,유로통계청,일본내각부,중국국가통계국.

1) 세계, 선진국, 신흥국 경제성장률(전분기대비 연율)은 IMF WEO Update의 추정치를 인용. 국가별로는 2012년 2/4분기 성장률이 미집계되어 1/4분기 자료를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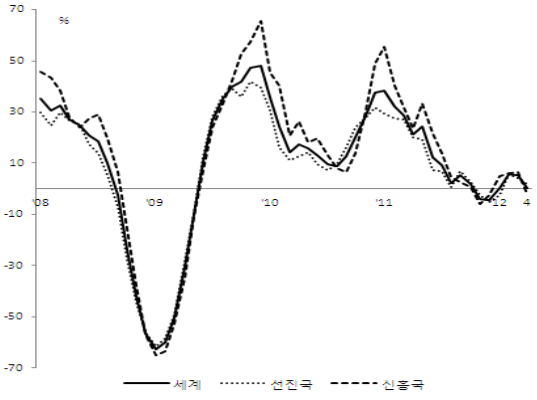
- 일본은 대지진 피해 재건 및 소비 진작을 위한 정부 노력, 생산시설 복구 등으로 주요 선진국 중 예외적으로 완만하게 회복되어 1/4분기 전분기대비 1.2% 성장함.

○ 2/4분기 신흥국의 경우 선진국 경기 둔화, 내수 둔화, 세계 교역량 위축, 과거 통화확대정책의 정상화 영향까지 겹치면서 전분기대비 성장률이 5.3%를 기록할 것으로 보임.

- 2/4분기 중국은 해외수요 감소, 부동산경기 침체, 제조업경기 악화 등으로 3년 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7.8%)을 기록함.
- 브라질은 원자재 최대 수입국인 중국경제 둔화로 경기침체 조짐[2]을 보였으며, 인도 역시 경기 둔화세[3]가 뚜렷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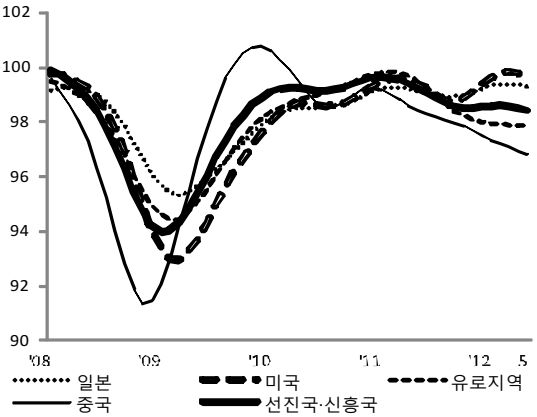
○ 제자리걸음을 하던 주요 선진국·신흥국의 경기선행지수가 최근 하락세[4]로 전환되면서 선진국과 신흥국 동반 성장세 둔화가 예상됨.

〈그림 Ⅱ-3〉 세계 수출 추이



주: 3개월 이동평균 증가율, 연율.
자료: IMF(2012. 7), WEO Update.

〈그림 Ⅱ-4〉 경기선행지수 추이



주: 2007. 1=100.
자료: 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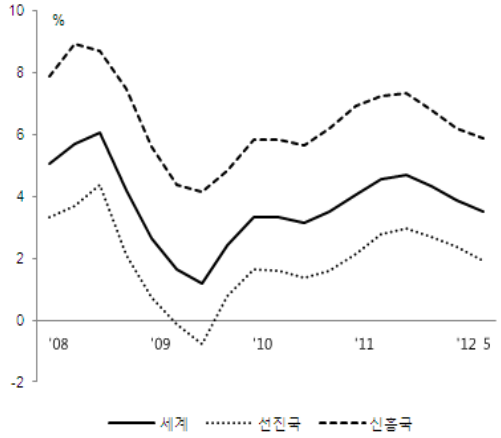
■ 세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원유 및 원자재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2011년 4/4분기 4.4%에서 2012년 2/4분기 3.3%로 낮아짐.[5]

2) 2011년 4/4분기 1.4%→2012년 1/4분기 0.8%(전년동기대비).
3) 2011년 4/4분기 6.1%→2012년 1/4분기 5.3%(전년동기대비).
4) OECD+6개 주요 신흥국의 경기선행지수는 2011년 4/4분기 100.0, 2012년 1/4분기 100.0, 2012년 5월 99.8을 기록함.

○ 2012년 상반기 원유 및 원자재 가격은 전년 말 대비 각각 11.7%, 9.7% 하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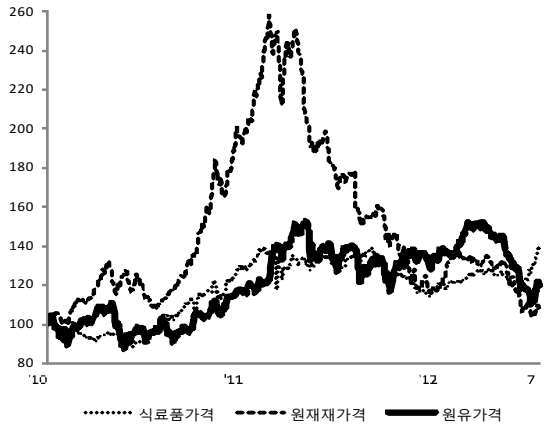
○ 선진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1년 4/4분기 2.7%에서 2012년 2/4분기 1.7%로 낮아졌고, 신흥국의 경우 같은 기간 6.5%에서 5.6%로 하락함.

〈그림 Ⅱ-5〉 소비자물가 상승률



주: 전년동기대비.
자료: IMF(2012. 7).

〈그림 Ⅱ-6〉 유가 및 원자재가격 추이



주: 2010. 1. 1=100
자료: IMF(2012. 7), WEO Upd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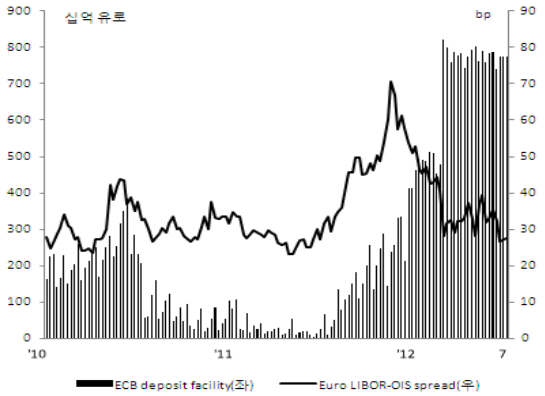
■ 유로존 재정위기 확산[6]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었음.

○ 유로지역의 경우 자금 유출, 재정적자와 은행부실의 역순환고리 생성, 은행의 대출 억제, 민간부문의 유동성 축소 등으로 유럽중앙은행(ECB)의 장기대출프로그램(LTRO) 효과가 희석됨.

- 신용경색이 심화되면서 LIBOR-OIS 스프레드[7]가 2011년 상반기 20~30bp에서 2012년 초 50bp 가까이 상승함.
- 미국과 유로지역의 민간 유동성 증가율 격차도 확대되는 등 유로지역 국가와 비유로지역 국가 간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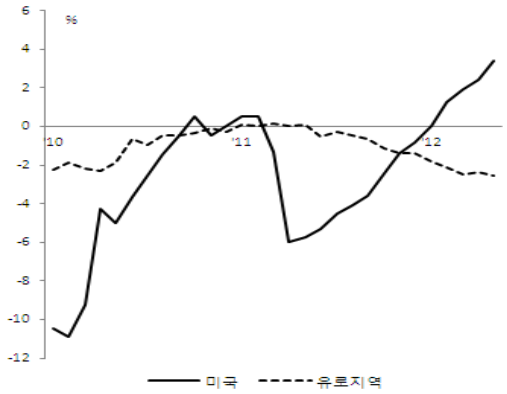
5) IMF(2012. 7), WEO Update.
6) 유럽 재정위기는 그리스의 정치 및 금융시장 불확실성, 스페인의 은행부실, 재정긴축 의지 부족, 구제금융 지원 반대여론 등으로 심화됨.
7) 유럽 은행 간 단기자금 차입 난이도를 보여주는 LIBOR 금리와 국내외 금융기관 간 일일 외화자금 금리인 overnight index swap(OIS)간 스프레드.

〈그림 Ⅱ-7〉 Money Market 스프레드



주: LIBOR-OIS 스프레드는 3개월 forward.
자료: IMF(2012. 7), WEO Update.

〈그림 Ⅱ-8〉 민간 부문 유동성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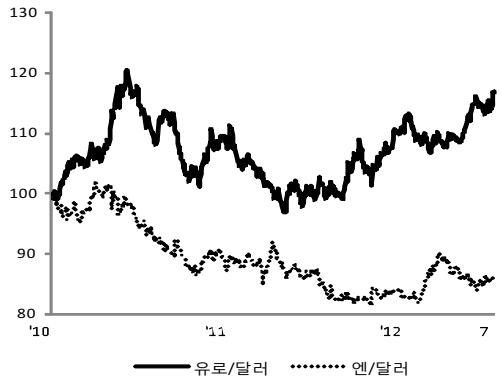


주: 전년동기대비.
자료: IMF(2012. 7), WEO Update.

○ 유로존 재정위기로 글로벌 금융시장은 위험자산 회피 및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자금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다시 불안정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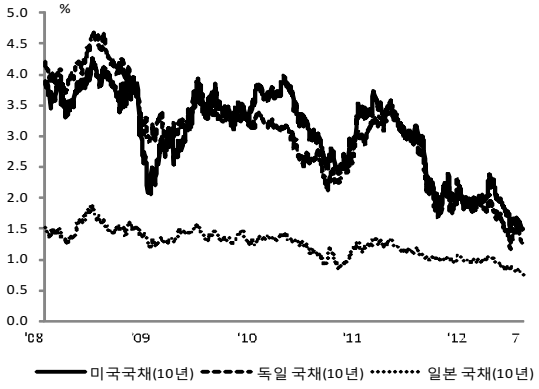
○ 유로화는 달러에 대한 수요 증가로 약세를 지속하여 2012년 상반기 평균 환율은 2011년 평균대비 7.3% 절하됨.

〈그림 Ⅱ-9〉 유로화 및 엔화 추이



주: 2010. 1=100
자료: IMF(2012. 7), WEO Update.

〈그림 Ⅱ-10〉 미국 국채 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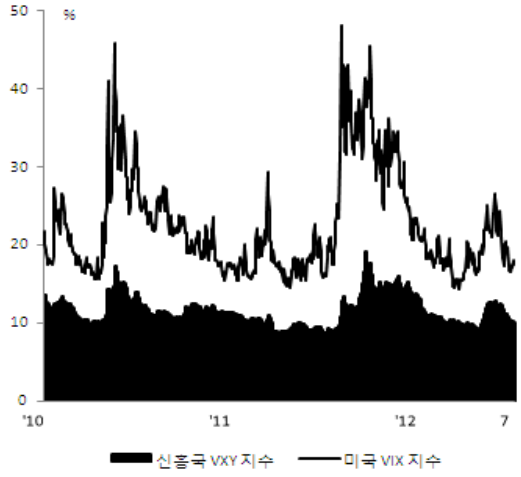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 미국 국채금리는 안전자산 선호로 5년, 10년, 30년 만기 모두 사상 최저 수준으로 하락함.[8)]

8) 2012. 7.24 현재 5년 만기, 10년 만기, 30년 만기 국채 금리는 각각 0.5410%, 1.3959%, 2.4613%까지 하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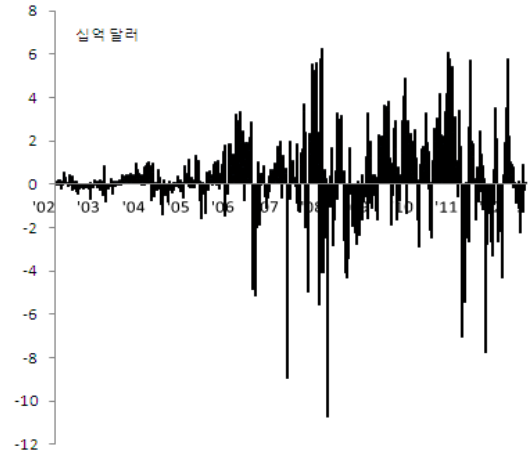
○ 한편 신흥국의 경우 자금 유출입 규모가 확대되면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짐.

〈그림 Ⅱ-11〉 금융시장 변동성



주: VIX는 미국 주식시장, VXY는 신흥국 외환시장에 대한 변동성을 측정.
자료: IMF(2012. 7), WEO Update.

〈그림 Ⅱ-12〉 신흥국 뮤추얼펀드 순매입



주: 1주 간격 순매입.
자료: IMF(2012.7), WEO Update.

■ IMF는 2012년 세계경제가 선진국과 신흥국의 경제 성장률 하락으로 2011년보다 0.4%p 낮은 3.5%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하방리스크가 매우 큰 것으로 판단됨.[9]

○ 2012년 선진국은 유로존 재정위기 영향 지속으로 유로지역은 역성장하고, 미국은 경기회복 모멘텀이 약화되면서 2011년(1.6%)대비 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

- 미국은 고용시장, 투자 및 민간소비 부문이 여전히 부진하나 수출이 개선되고 있어 1.9~2.9%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10]
- 유로지역은 재정위기 확산에 따른 은행의 신용 축소, 가계와

9) IMF는 전망의 전제 조건으로 다음 세 가지가 충족되어 궁극적으로는 미국이 완만하나마 회복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함. 첫째,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한 충분한 정책대응으로 2013년에는 재정위기가 점진적으로 완화. 둘째, 미국의 급격한 재정긴축을 의미하는 재정절벽이 2013년에 발생하지 않음. 셋째, 신흥국의 경기부양 실시.
10) FOMC(2012. 6), Minutes of the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기업의 부채 조정, 고용 감소 등의 영향으로 −0.5~−0.3%[11] 성장할 것으로 보임.[12]

- 일본경제는 지진피해 복구 관련 투자 및 소비 지출 증가, 신흥국 및 원유 수출국으로부터의 수입 증가로 2.3% 회복세가 예상됨.[13]

○ 2012년 신흥국 역시 유로존 재정위기 영향으로 대외부문의 어려움이 예상되나 경기부양[14] 효과와 원유가격 안정에 힘입어 성장률 하락은 제한될 것으로 보임.

〈표 Ⅱ-1〉 전망기관별 2012년 세계경제 전망

전망기관 (전망시점)	세계	선진국	신흥국	미국	유로지역	일본	독일	중국
IMF (2012. 7)	3.5%	1.4%	5.6%	2.0%	−0.3%	2.4%	1.0%	8.0%
IMF (2012. 4)	3.6%	1.4%	5.7%	2.1%	−0.3%	2.0%	0.6%	8.2%
EU (2012. 5)	3.3%	−	−	2.0%	−0.3%	1.9%	0.7%	8.4%
World Bank (2012. 6)	3.3%[1)]	1.4%	5.3%	2.1%	−0.3%	2.4%	−	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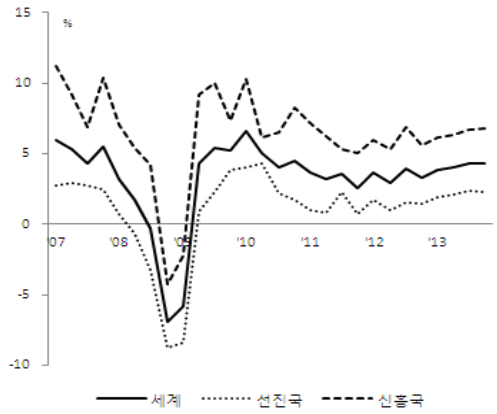
주: 1) 2005PPP 가중치 사용.
자료: IMF(2012. 7),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IMF(2012. 4), World Economic Outlook; EU(2011. 5), European Economic Forecast; World Bank(2012. 6), Global Economic Prospects.

- 중국경제는 수출 및 소비 증가세 둔화가 생산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으나 하반기부터는 통화·재정 확대정책의 영향으로 8.0% 전후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됨.[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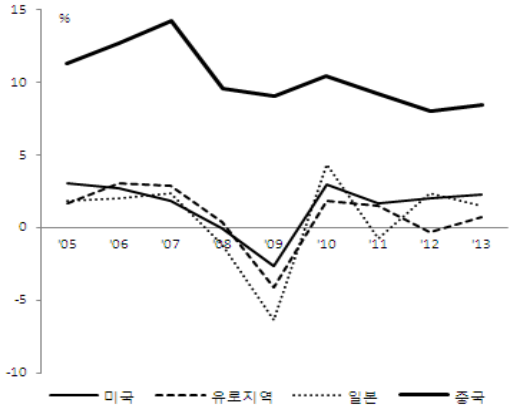
11) 유럽중앙은행(ECB)(2012. 6), Monthly Bulletin.
12) IFO(독일), INSEE(프랑스) 및 ISTAT(이탈리아)는 유로지역이 2/4분기 −0.2%, 3/4분기 −0.1%, 4/4분기 0.1% 성장하는 상저하고의 형태를 띨 것으로 전망.
13) 일본중앙은행(BOJ)(2012. 4), Outlook for Economic Activity and Prices.
14) 2011년 말~2012년 초부터 시행된 지준율 인하, 기준금리 인하 등의 통화확대정책.
15) IMF(2012. 7), WEO Update.

– 인도경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높아 경기둔화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가 쉽지 않기 때문에 6% 초반의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그림 Ⅱ-13〉 세계경제 성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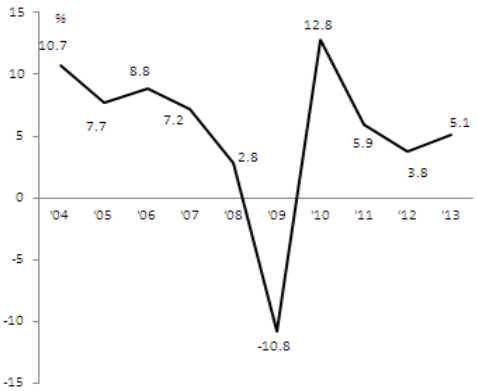
〈그림 Ⅱ-14〉 주요국 성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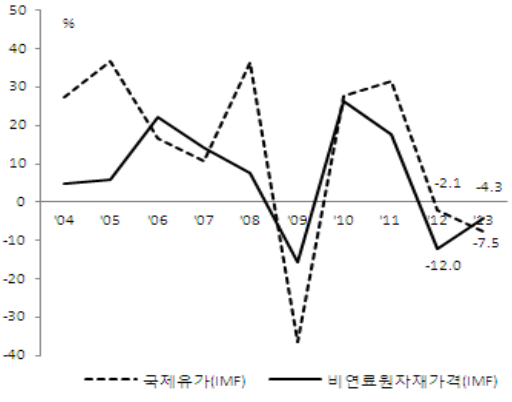
자료: IMF(2012.7), WEO Update.

■ 세계무역량 증가율은 세계경기 둔화로 예년 수준(7~8%)에 미달하는 3% 후반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

〈그림 Ⅱ-15〉 세계무역 전망



〈그림 Ⅱ-16〉 국제유가·원자재 가격 전망



자료: IMF(2011. 6),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 2012년 세계 소비자물가는 경제성장률 하락, 원유 및 원자재 가격 안정으로 상승률이 3.0~3.3%에 그칠 것으로 보임.[16)]

16) IMF(2012. 7), WEO Update.

○ 원유 및 원자재 가격 역시 경제성장률 하락에 따른 수요 감소로 상승세가 크게 둔화되어 각각 전년대비 2.1%, 12.0% 하락하여 배럴당 평균 102.1~104.5 달러[17](두바이 기준)가 될 것으로 보임.

- 다만, 기상이변으로 곡물가격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여 상방리스크가 상존함.[18]

■ 한편, 세계 경제성장률 둔화 자체보다 더욱 크게 우려되는 것은 경기하방 리스크의 현실화임.

○ 경기하방 리스크 요인으로 유로존 재정위기 악화[19], 미국의 재정절벽[20], 미국과 일본의 재정 건전화 계획 실패[21], 세계경제 잠재성장률 하락, 중국경제 경착륙 등을 꼽을 수 있음.

■ 선진국의 경우 비전통적 수단을 포함한 통화정책[22]을 통해 경기부양과 유럽 재정위기 확산을 방지하는 적극적인 대응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더블딥에 빠질 수 있음.

○ 미국과 일본은 신뢰성 있는 중장기 재정건전화 개혁 추진이 필요함.

○ 유로지역은 2012년 6월 EU정상회의 합의 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동시에 은행동맹·재정통합을 위한 추가노력이 필요하고, 구제금융 국가의 경우 차질 없는 구조개혁 이행이 요구됨.

■ 신흥국의 경우 성장률 저하가 정상화과정으로 평가되는 국가는 과열 재발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두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제

17) 에너지경제연구원(2012. 1)은 배럴당 102.1달러, CERA(Cambridge Energy Research Associates)(2011. 12)는 배럴당 104.5달러를 전망.
18) 미국과 러시아의 가뭄으로 곡물 생산이 차질을 빚으면서 옥수수, 밀 등 등 주요 곡물 가격이 최근 연중 최고치로 치솟음. 7월 현재 12월 인도분 옥수수 선물가격은 부셀당 7.41달러를 기록하여 한 달 사이에 가격이 45% 상승함.
19) 유로존 재정위기 해소를 위한 유로지역의 정책대응이 지연되거나 불충분할 가능성.
20) 미국 정부와 의회의 감세 연장 합의 실패로 인한 재정절벽 문제 현실화.
21) 미국·일본의 중기 재정건전화 계획 수립 실패로 인한 채권·외환 시장 혼란 발생.
22) 금리 인하와 국채 매입.

한적인 국가는 추가 금리인하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재정여건이 지속가능한 국가는 자동안정장치를 작동시키고, 재정수지가 흑자인 국가는 추가 재정지원을 고려해야 함.

2. 국내실물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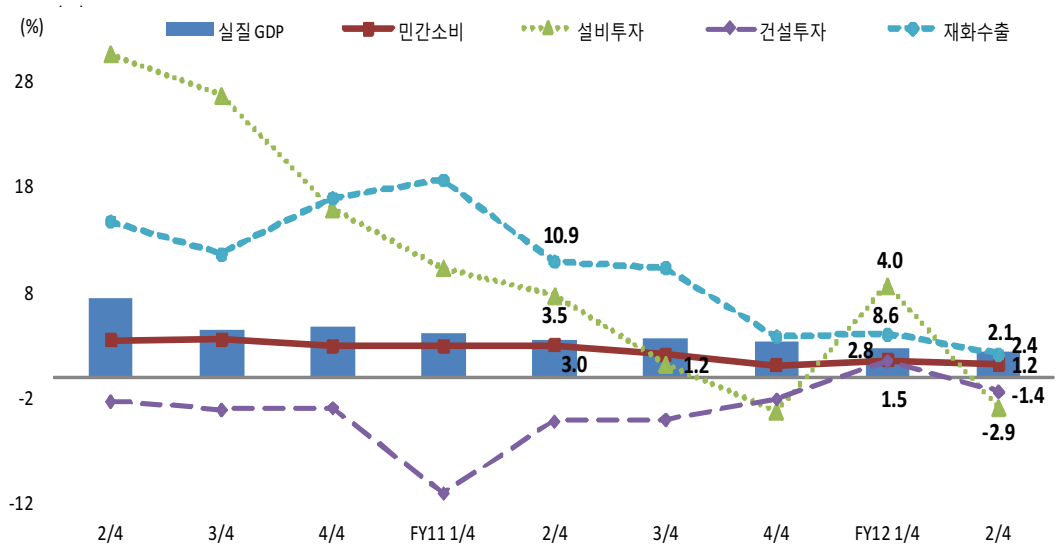
〈성장 및 내수〉

■ 국내 경제는 유로존 재정위기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과 주요 선진국 및 신흥국의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민간소비와 수출 증가세 부진이 지속되고 있음.

○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에 따른 해외수요 감소로 재화수출은 2011년 4/4분기 전년동기대비 3.8%, 2012년 1/4분기 4.0%, 2/4분기 2.1% 증가로 증가세 둔화가 지속되고 있음.

○ 민간소비는 가계부채 문제 등으로 부진이 지속되고 있음.

〈그림 Ⅱ-17〉 국내 분기별·지출항목별 성장률 추이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 민간소비 둔화와 수출 증가율 하락이 지속됨에 따라 2012년 2/4분기 실질GDP 성장률은 2011년 2/4분기보다 1.1%p 감소한 2.4%를 기록함.

■ 2012년 국내경제는 대외여건 악화로 인한 재화수출 증가율 둔화, 국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인한 소비, 투자 부진 등으로 2011년보다 0.9%p 낮은 2.7%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민간소비는 가계부채로 인한 원리금 상환 부담과 수도권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2011년 2.3%보다 낮은 1.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설비투자는 자동차, 통신 등 비IT 부문을 중심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상품수출 증가율 둔화와 경기 불확실성 확대로 인한 기업들의 투자심리가 위축되어 2011년 3.7%보다 다소 높은 5.1%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건설투자는 기저효과 및 비주거용부문 주도로 2011년 -5.0%에서 1.3%로 증가로 전환할 전망임.

○ 재화수출은 유로존 재정위기로 인한 불확실성 확대로 해외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2011년 10.5%보다 큰 폭으로 줄어든 3.3% 증가를 기록할 전망임.

〈고용〉

■ 2012년 고용의 경우 고령화 및 여성의 사회진출, 이에 따른 무상보육 등 정부정책으로 서비스업 취업자 증가세가 취업자 수 증가를 주도할 전망임.

○ 2012년 5월 중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47만 2천 명 증가하면서 실업률은 0.1%p 감소, 고용률은 0.4%p 증가함.

○ 서비스업 취업자 수 증가세에 힘입어 2012년 실업률은 2011년 3.7% 보다 낮은 3.6%일 것으로 예상되며, 고용률은 0.9%p 상승한 60.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물가〉

■ 유로존 재정위기 심화로 인한 국제유가 하락과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2012년 소비자물가는 2.5%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2012년 들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정부정책과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상승세가 완만해져 3월부터 4개월 연속 3%를 하회함.

○ 향후 국제원자재 가격 인하 등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1년 4.0% 보다 1.5%p 낮아질 전망임.

〈대외거래〉

■ 2012년 대외거래는 상품수출 증가율이 크게 하락하면서 상품 및 경상수지 흑자폭이 2011년에 비해 축소될 전망임.

○ 유로존 재정위기 악화로 인한 주요 수출국의 경기 악화로 2012년 수출 증가율은 2011년 19.7%에서 17.9%p 감소한 1.8%가 될 것으로 전망됨.

○ 내수경기 둔화에 따른 수입 수요 감소의 영향으로 수입 증가율은 2011년 23.8%에서 20.4%p 하락한 3.4%가 될 전망임.

○ 아울러 경상수지는 2011년에 비해 72억 8,000만 달러 축소된 192억 3,000만 달러에 그칠 전망임.

〈표 Ⅱ-2〉 국내 실물경제 전망

(단위: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F)
실질GDP 성장률	2.3	0.3	6.2	3.6	2.7
(명목GDP)	(5.3)	(3.8)	(10.1)	(5.4)	(4.4)
민간소비	2.0	1.2	3.9	2.3	1.9
건설투자	-2.8	3.4	-1.4	-5.0	1.3
설비투자	-1.0	-9.8	25.0	3.7	5.1
재화수출	4.6	-0.2	15.8	10.5	3.3
재화수입	4.5	-7.8	18.2	8.7	3.2
실업률	3.2	3.6	3.7	3.7	3.6
(고용률)	(59.5)	(58.6)	(58.7)	(59.1)	(60.0)
소비자물가	4.6	2.8	2.9	4.0	2.5
경상수지(억 달러)	31.9	327.9	293.9	265.1	192.3
상품수지(억 달러)	51.7	378.6	419.0	310.0	231.6
상품수출(억 달러)	4,346.5	3,581.9	4,642.9	5,525.6	5,625.1
(증가율)	(13.6)	(-13.9)	(28.3)	(19.7)	(1.8)
상품수입(억 달러)	4,294.8	3,203.2	4,223.8	5,216.1	5,393.5
(증가율)	(22.0)	(-25.8)	(31.6)	(23.8)	(3.4)

주: 2012(F)는 보험연구원 전망치.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3. 국내금융시장

■ 기준금리는 주요국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부담감과 국내 경기부진에 대한 우려로 7월 12일 25bp 인하되었으며, 하반기 역시 이러한 금리인하 기조 내에서 통화정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음.

○ 2012년 7월 중국, ECB 등 주요국들은 금리 인하를 단행하였으며, 향후 글로벌 경기가 급속도로 호전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고

려할 때 하반기에도 글로벌 저금리 기조가 유지될 것임.

○ 국내 역시 경제성장률 회복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대두되고 있으며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부양 여력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하반기 중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가능한 상황임.

■ 국고채금리(3년 만기)는 상반기에 이어 안전자산 선호 기조가 유지되고 경기부양을 위한 추가적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하반기에도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 보임.

○ 주요국 국채금리 하락과 더불어 동반 하락세를 나타냈던 국고채금리는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과 외국인 국채매수 수요에 힘입어 상반기 3.4%, 하반기 3.3% 등 연간 3.4% 수준으로 2011년에 비해 0.2%p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표 Ⅱ-3〉 국내 금리 및 환율 전망

구분	2010	2011	2012(F)		
			연간	상반기	하반기
회사채(AA-) 수익률	4.7%	4.4%	4.1%	4.2%	4.1%
국고채3년 수익률	3.7%	3.6%	3.4%	3.4%	3.3%
원/달러(원)	1,156.5	1,152.4	1,134.4	1,141.6	1,127.9

주: 기간 평균값.

■ 2012년 원/달러 환율은 상반기 평균 1,140원보다 낮은 연평균 1,130원 수준으로 소폭 절상될 것으로 전망됨.

○ 하반기로 갈수록 유럽 재정위기에 대한 주요국들의 정책적 해법이 구체화되고, 유로화가 상반기 극심한 약세에서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으면서 이에 따라 달러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음.

- 반면 그리스 유로존 탈퇴,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상황 악화 시 환율 급등이 나타날 수 있음.

○ 해외 투자자금 유입으로 국내 외화유동성 상황이 양호하고 외환보유액이 약 3,200억 달러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원/달러 환율은 향후 점차적으로 하락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임.

- 경상수지 흑자 및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입은 하반기 원/달러 환율의 잠재적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Ⅲ 국내보험시장

1. 주요지표[23)]

■ FY2011 보험산업 수입보험료는 손해보험 증가세에 힘입어 10.2% 성장하였으나, FY2012에는 경제성장률 하락의 영향으로 7.3% 성장이 전망됨.

○ FY2011 생명보험은 저축성보험 증가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이 5.8%에 그쳤으며, FY2012에도 경기둔화에 따른 보험수요 위축으로 성장률이 더욱 낮아진 4.7%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FY2011 손해보험은 장기손해보험 고성장에 힘입어 16.7% 성장하였으나, FY2012에는 경기둔화로 인한 자동차보험과 일반손해보험의 성장률 하락으로 11.1% 성장이 전망됨.

〈표 Ⅲ-1〉 보험산업 수입보험료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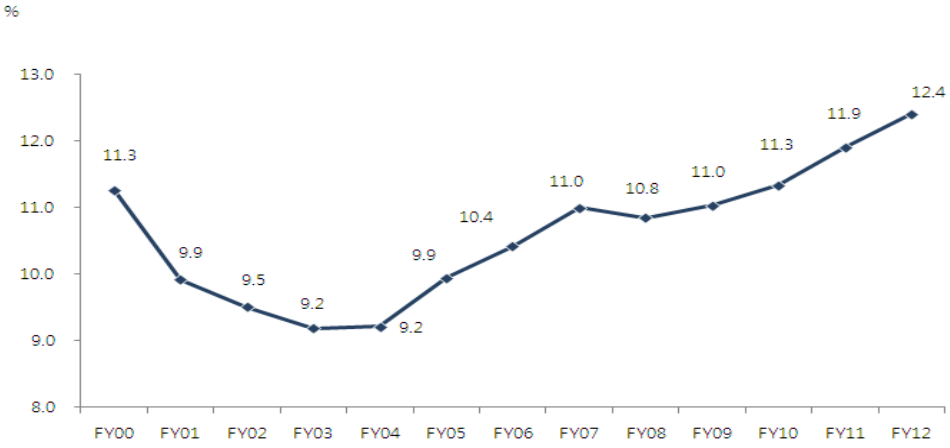
(단위: 조 원, %)

구분	FY2009		FY2010		FY2011		FY2012(F)	
	보험료	성장률	보험료	성장률	보험료	성장률	보험료	성장률
생명보험	77.0	4.6	83.0	7.9	87.8	5.8	92.0	4.7
손해보험	43.8	16.9	52.2	19.2	61.0	16.7	67.7	11.1
전체	120.8	8.7	135.0	11.8	148.8	10.2	159.7	7.3

■ FY2012 보험침투도(수입보험료/명목GDP[24)])는 수입보험료 성장이 경상GDP 성장을 상회하면서 전년보다 0.5%p 상승한 12.4%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됨.

23) 농협보험은 제외되었음.
24) 보험침투도의 명목GDP는 FY기준이며, FY2012 명목GDP는 4.4% 성장 전망.

〈그림 Ⅲ-1〉 보험침투도 추이



■ 보험산업 전체 총자산은 경기악화로 인한 수입보험료 성장 둔화와 저금리 환경에 따른 자산운용이익률 하락으로 11.0% 증가에 그칠 전망임.

〈표 Ⅲ-2〉 보험산업 총자산 전망

(단위: 조 원, %)

구분	FY2009		FY2010		FY2011		FY2012(F)	
	총자산	증가율	총자산	증가율	총자산	증가율	총자산	증가율
생명보험	372.5	13.5	417.0	11.8	458.2	10.0	505.2	10.3
손해보험	86.1	16.4	102.0	18.7	129.8	27.0	147.3	13.5
전체	458.6	14.0	519.0	13.0	588.0	13.3	652.5	11.0

2. 생명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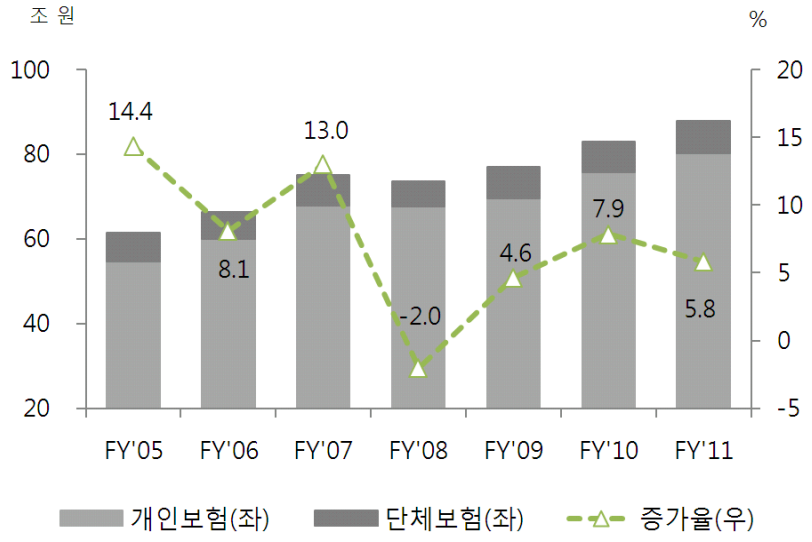
1) 수입보험료

■ FY2011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개인보험과 단체보험이 모두 5%대의 고른 성장세를 보였으나 경기둔화 등의 영향으로 전체적으로 전년보다 2.1%p 낮은 5.8% 성장에 그침.

○ 개인보험은 보장성보험이 3년 만에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되었고 저축성보험이 생사혼합보험을 중심으로 5.9% 성장하였으나 성장률은 전년보다 2.8%p 하락함.

○ 단체보험은 제도 종료로 인한 퇴직보험 수입보험료 유입 중단에도 불구하고 퇴직보험의 퇴직연금 전환이 이어지면서 퇴직연금이 고성장함에 따라 전년보다 5.8%p 높아진 5.3% 증가함.

〈그림 Ⅲ-2〉 수입보험료 성장률 추이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FY2008 12.4%까지 상승했던 해약률은 FY2011 10.2%까지 하락하면서 3년 연속 하락세를 이어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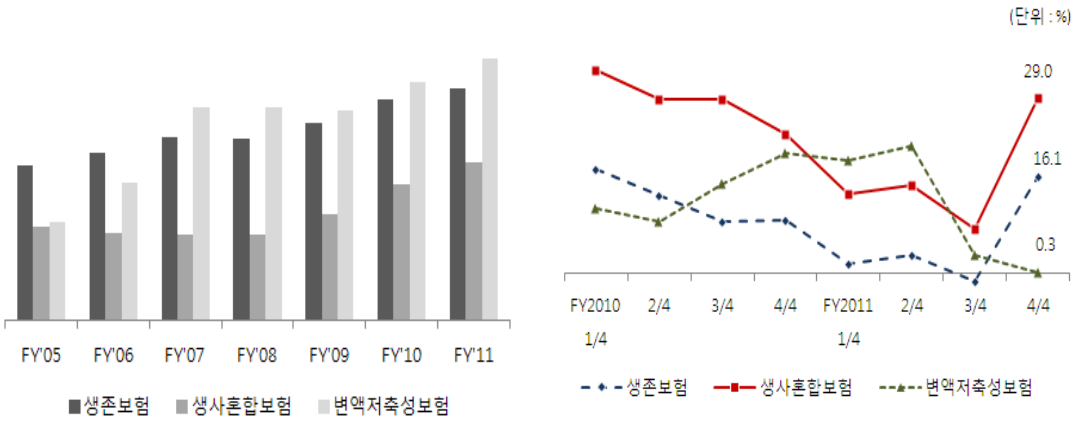
■ FY2012에는 경제성장률이 더욱 하락할 것으로 보여 전반적인 보험수요 위축이 예상되나 외부요인에 의한 생사혼합보험과 생존보험의 고성장이 예상되어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4.7%의 성장이 전망됨.

○ FY2012 경기둔화와 이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증대 및 고용의 질 악화로 보장성보험, 변액보험, 단체보험 등에 대한 수요가 위축될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저금리 환경 속에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로 저축성보험의 상대적 고금리가 부각되면서 방카슈랑스를 통한 생사혼합보험의 고성장세는 FY2012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 또한 연금생명표 개정으로 보험료 인상이 예상되면서 단기적으로 생존보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이에 따른 계속보험료 유입이 지속되면서 생존보험도 높은 성장률이 전망됨.

〈그림 Ⅲ-3〉 저축성보험 종목별 성장률 추이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2) 보장성보험[25] 현황과 전망

■ FY2011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는 종신보험 및 암보험 등 건강보험 판매확대로 3년간 지속된 마이너스 성장에서 0.0% 성장으로 성장률이 개선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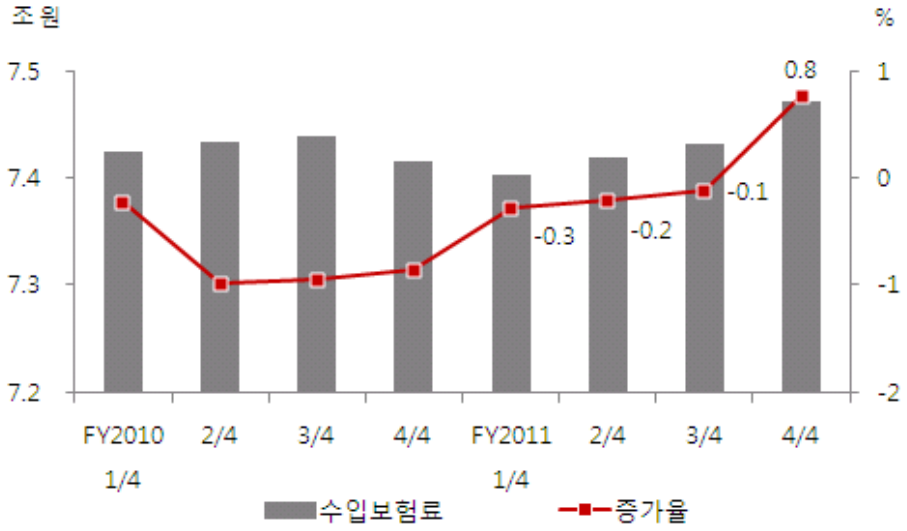
○ FY2010 3.7% 감소한 바 있는 종신보험 초회보험료는 통합형 보

25) 변액종신보험을 포함함.

험의 수요가 지속되고 연금전환 기능을 부가한 신상품들도 출시되면서 FY2011 0.9% 증가함.

○ 손해율 악화를 이유로 건강보험 신상품 출시에 소극적이었던 보험회사들이 보장성보험 확대 노력과 감독당국의 암보험 활성화 정책 등으로 신상품 출시를 확대함.

〈그림 Ⅲ-4〉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 추이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FY2012 사망보험은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나 경기둔화에 따라 고가의 종신보험 수요가 영향을 받으면서 성장률은 0.3%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종신보험에 적립금의 연금전환 기능을 부가하고 연금전환 시에는 가입 당시의 생명표를 적용하는 신상품 출시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암보험 등 건강보험 확대 노력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생사혼합보험 및 생존보험 수입보험료가 증가하면서 보장성 보험 확대를 통한 보험회사의 상품 포트폴리오 조정 노력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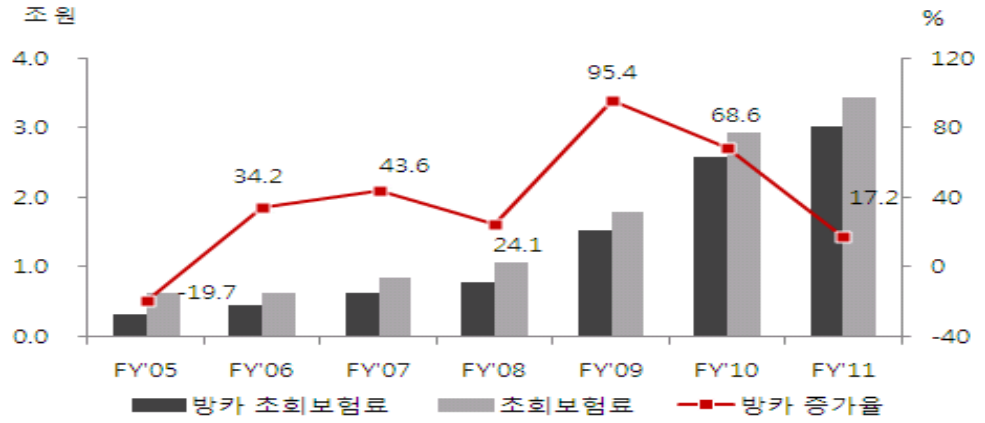
○ 그러나 2012년 경제성장률 하락이 전망됨에 따라 소비 위축으로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고가인 종신보험의 수요 확대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3) 저축성보험 현황과 전망

■ FY2011 저축성보험은 타 금융권을 통한 생사혼합보험 판매가 크게 증가하고 금융시장 안정으로 변액보험 수요가 확대되면서 9.6% 증가함.

○ 생사혼합보험은 FY2009, FY2010 각각 23.6%, 28.2%의 고성장을 기록했으며, FY2011에도 증가율이 소폭 둔화되기는 하였으나 16.3% 증가하면서 생명보험 전체 수입보험료의 성장을 견인함.

〈그림 Ⅲ-5〉 방카슈랑스 생사혼합보험 초회보험료 추이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생사혼합보험의 고성장은 주로 방카슈랑스 채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카드회사까지 생사혼합보험 판매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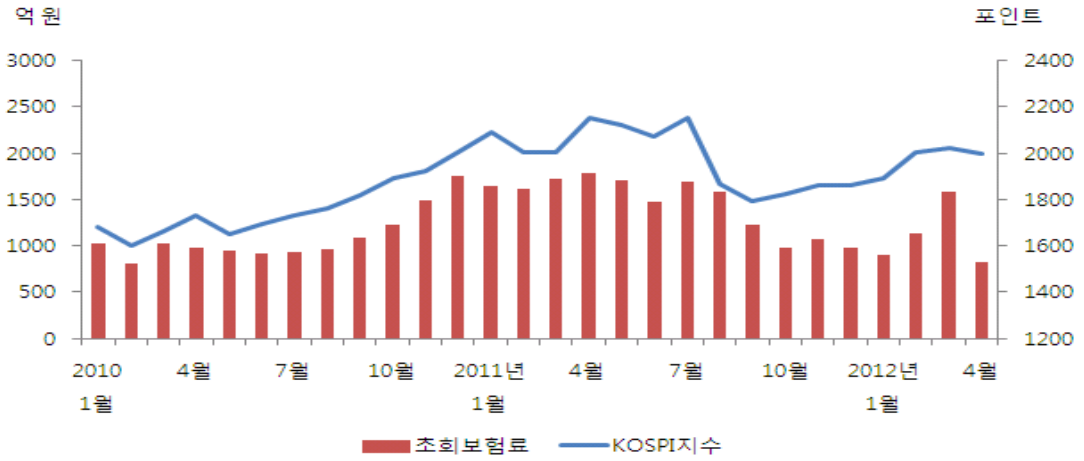
- 금융위기 이후 시중금리가 하락하고 금융시장이 위축되면서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금융회사들이 생사혼합보험의 상대적 고금리를 이용하여 보험판매 수수료 수입 확대에 집중함.

○ 생존보험은 FY2010년 고성장에 따른 기저효과로 FY2011 3/4분기까지 1.1% 성장에 머물렀으나 생명표 개정에 따른 보험료 인상이 예상되면서 4/4분기에는 16.1% 증가함.

○ 변액저축성보험은 FY2011 코스피 지수가 등락을 거듭했음에도 불구하고 변액연금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수요가 지속됨.

- 2011년 3월 말 2,091 포인트를 기록하던 코스피 지수는 2011년 8월 1,710 포인트까지 하락한 뒤 2012년 3월 말에는 다시 2,014 포인트까지 상승함.

〈그림 Ⅲ-6〉 변액연금 초회보험료 추이



자료: KRX,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FY2012 저축성보험은 방카슈랑스를 통한 생사혼합보험의 고성장이 지속되고 보험료 인상 전 수요확대 효과로 생존보험도 고성장하면서 전체적으로 7.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시중금리 하락 추세가 지속되면서 생사혼합보험의 금리경쟁력은

지속될 것으로 보임.

○ 한편 감독당국은 불완전판매 가능성 등으로 타 금융회사를 통한 생사혼합보험 판매 확대를 경계하는 모습임.

- 감독당국은 방카슈랑스를 통한 생사혼합보험 판매가 과열되면서 과도한 공시이율 제시, 불완전 판매 가능성 등에 우려를 나타냄.

○ 생존보험은 보험료 인상 전 가입수요 확대가 FY2012 1/4분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이로 인한 계속보험료의 유입으로 고성장이 전망됨.

○ 변액저축성보험은 최근 불거진 수익률 논란과 경기악화에 따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수입보험료 증가세가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표 Ⅲ-3〉 개인보험 수입보험료 성장률 전망

(단위: 억 원, %)

종목	FY2009		FY2010		FY2011		FY2012(F)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장성	299,386	-1.8	297,126	-0.8	297,243	0.0	298,283	0.3
저축성	397,165	6.6	460,277	15.9	504,609	9.6	539,693	7.0
합계	696,551	2.8	757,403	8.7	801,852	5.9	837,976	4.5

4) 단체보험 현황과 전망

■ FY2011 단체보험은 제도종료로 퇴직보험의 수입보험료 유입이 중단되고 일반단체보험도 감소하였으나 퇴직연금 고성장에 힘입어 전년 마이너스 성장에서 5.3%의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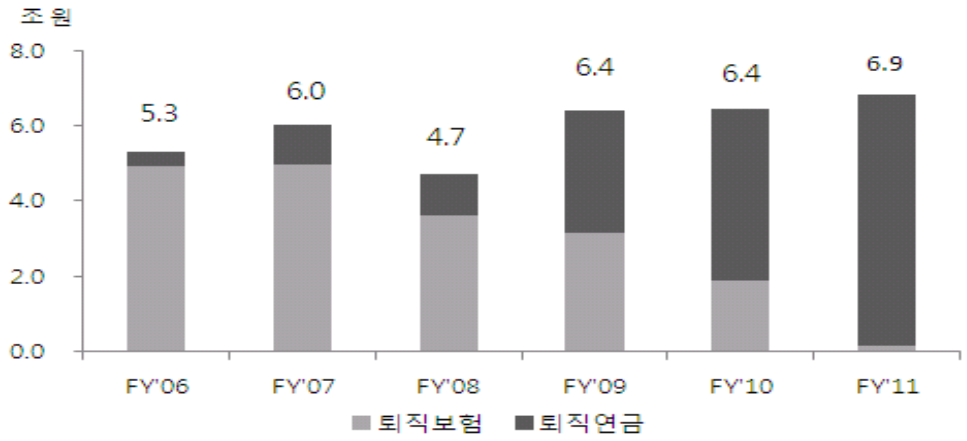
○ FY2011 퇴직연금은 퇴직보험의 퇴직연금 전환이 어지면서 46.7%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으나 퇴직보험과 일반단체보험은 각각 92.7%, 3.0% 감소함.

○ 2011년 말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49조 9천억 원으로 2010년

말 29조 1천억 원에 비해 71.3% 증가하였으며, 생명보험 퇴직연금 적립금 비중은 25.6%로 나타남.

- 2011년 생명보험 퇴직연금 적립금 비중은 2010년 26.1%에 비해 하락하였으나 하락폭은 둔화됨.

〈그림 Ⅲ-7〉 퇴직보험, 퇴직연금 수입보험료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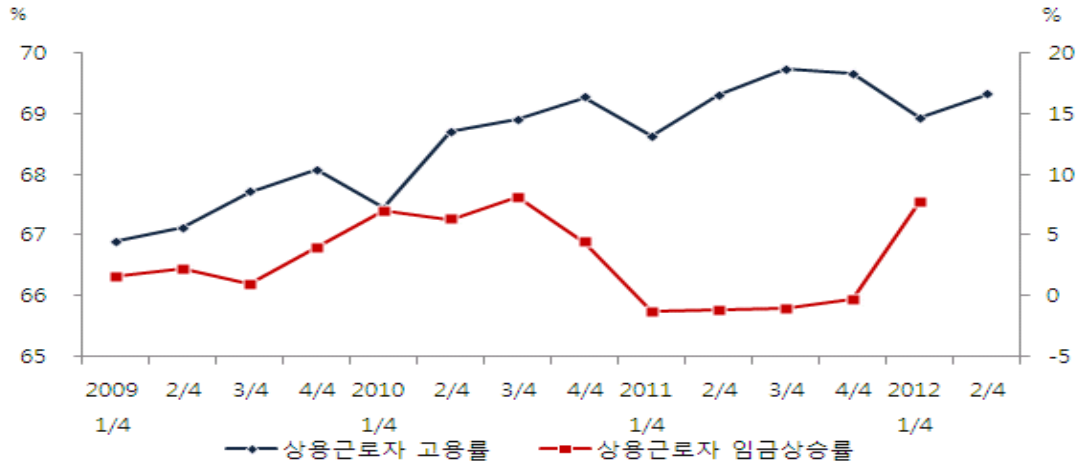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FY2012 단체보험은 퇴직연금이 계속보험료 위주의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면서 6.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FY2012 퇴직연금시장은 퇴직보험 및 신탁 잔액의 퇴직연금 전환이 마무리 되고 경기둔화에 따라 고용 악화 및 임금 상승률이 둔화되면서 계속보험료 위주의 완만한 성장이 전망됨.

〈그림 Ⅲ-8〉 상용근로자 고용률 및 임금상승률 추이



자료: 통계청.

○ 퇴직보험 및 신탁의 효력기간 만료(2010년 말)이후 2011년 말 500인 이상 대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이 84.6%[2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퇴직연금의 추가적인 대규모 신규가입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

○ 그러나 2012년 7월부터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이라 함)이 퇴직연금시장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임.

〈표 Ⅲ-4〉 단체보험 수입보험료 성장률 전망

(단위: 억 원, %)

종목	FY2009		FY2010		FY2011		FY2012(F)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일반단체	8,921	-16.7	8,205	-8.0	7,955	-3.0	7,815	-1.8
퇴직보험	31,654	-12.5	18,678	-41.0	1,373	-92.7	0.0	-100.0
퇴직연금	32,441	189.3	45,789	41.1	67,180	46.7	73,935	10.1
합계	73,017	25.7	72,672	-0.5	76,508	5.3	81,750	6.9

26)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표 Ⅲ-5〉 수입보험료 성장률 전망

(단위: 억 원, %)

종목	FY2009		FY2010		FY2011		FY2012(F)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개인보험	696,551	2.8	757,403	8.7	801,852	5.9	837,976	4.5
단체보험	73,017	25.7	72,672	-0.5	76,508	5.3	81,750	6.9
합계	769,568	4.6	830,074	7.9	878,360	5.8	919,726	4.7

- 근퇴법에 따르면 보험설계사를 퇴직연금 모집인으로 등록시켜 모집업무의 위탁이 가능하도록 허용되며, 퇴직자의 퇴직금이 IRA로 강제 이전되고 DB/DC형에 가입한 재직자와 일반자영업자도 IRA 가입이 가능해짐.

○ 한편, 경기둔화로 인한 고용악화 및 임금상승률 둔화는 퇴직연금 수입보험료 증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3. 손해보험

1) 손해보험 개요

■ FY2011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자동차보험 저성장에도 불구하고 장기손해보험 및 연금부문 고성장으로 16.7% 증가하였으나, 성장률은 전년에 비해 2.5%p 하락함.

○ 장기손해보험은 방카슈랑스 채널 중심의 저축성보험 급증과 해지율 안정화에 따른 계속보험료의 꾸준한 증가로 전년(21.0%)에 이어 21.2%의 고성장을 기록함.

○ 연금부문[27]은 정부의 연금활성화를 위한 노력[28]과 노후 소득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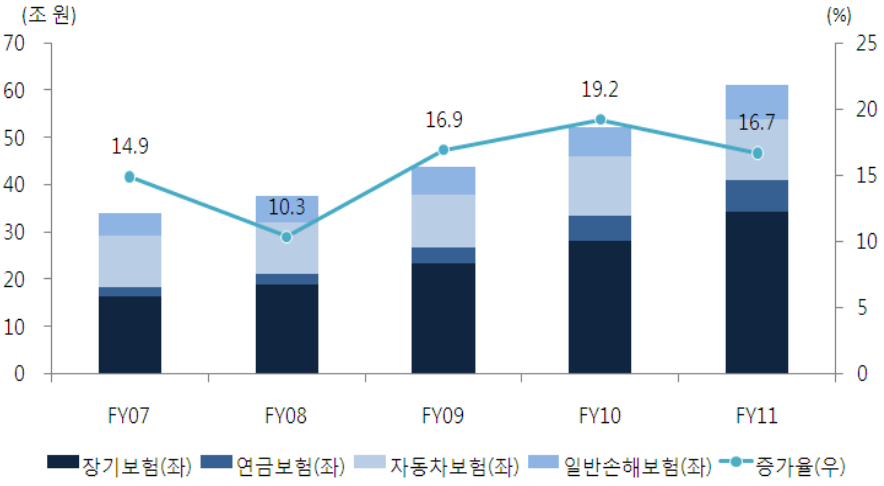
27) 연금부문은 개인연금, 퇴직보험 및 퇴직연금을 말함.
28) 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 400만 원 상향 조정,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한도 축소 등.

대한 관심 증가로 24.8% 증가하였으나, 성장률은 기저효과로 전년에 비해 29.9%p나 하락함.

○ 자동차보험의 경우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율 둔화, 담보별 요율 조정 등으로 성장률이 전년도에 비해 5.5%p나 낮아진 5.1%에 그침.

○ 일반손해보험의 경우 해상, 보증, 특종의 양호한 증가세로 성장률이 전년대비 5.1%p 상승한 12.7%를 기록함.

〈그림 Ⅲ-9〉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율 추이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FY2012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장기손해보험의 견조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경기둔화로 인한 자동차보험과 일반손해보험 성장세 감소로 11.1% 증가할 것이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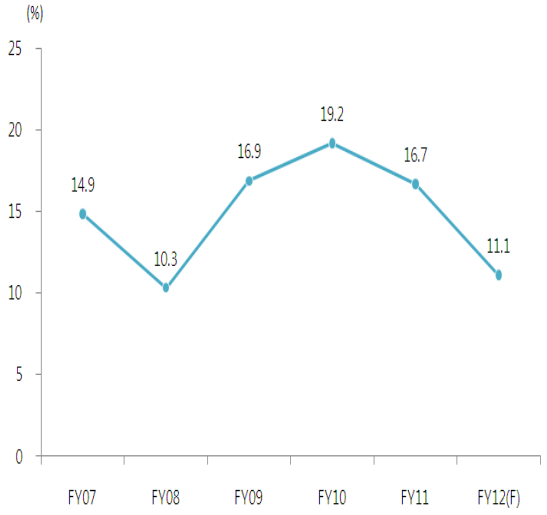
○ 장기손해보험은 지속적인 판매 호조로 인한 계속보험료 유입과 상대적 고금리에 의한 저축성보험 신규 판매 증가 추세에 힘입어 13.3% 성장이 예상됨.

○ 연금부문은 퇴직연금이 신규가입 부진으로 성장세 둔화가 예상되는 반면 개인연금이 고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어 전체 21.5% 증가가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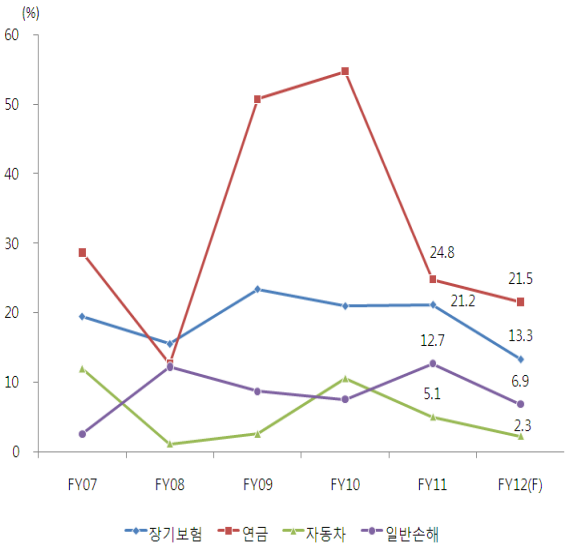
○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율 둔화와 보험요율 인하로 성장률이 2.3%로 낮아질 전망임.

○ 일반손해보험은 경기둔화 등 대내외적인 위험요인 증가로 인한 성장 동력 약화로 6.9% 증가에 그칠 전망임.

〈그림 Ⅲ-10〉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율 전망



〈그림 Ⅲ-11〉 종목별 원수보험료 증가율 전망



2) 장기손해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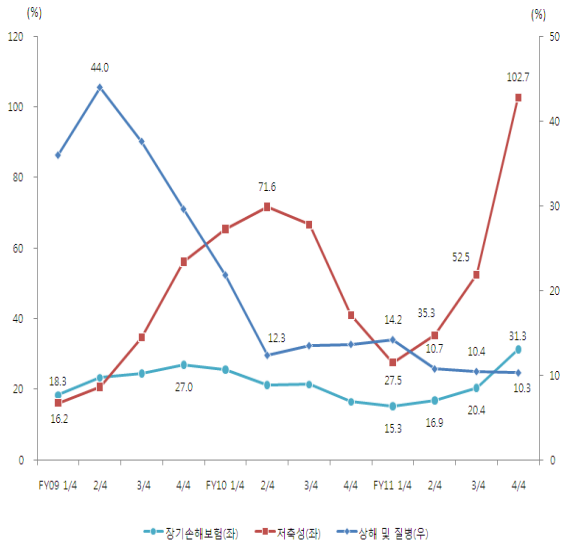
■ FY2011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상해 및 질병보험 성장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저축성보험과 재물보험 고성장으로 21.2% 증가하였으며, 3년 연속 20% 이상의 고성장을 나타냄.

○ 저축성보험은 시중금리 하락으로 수입 확보에 어려움을 느낀 금융회사들이 하반기 방카슈랑스 채널을 통한 저축성보험 신규 판매를 확대함에 따라 55.8%의 고성장을 지속함(FY2010 59.9%).

○ 상해 및 질병보험의 경우 계속보험료 유입에 따른 성장세를 유지하였으나 초회보험료가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함에 따라 성장률이 FY2010 15.1%에서 FY2011 11.4%로 둔화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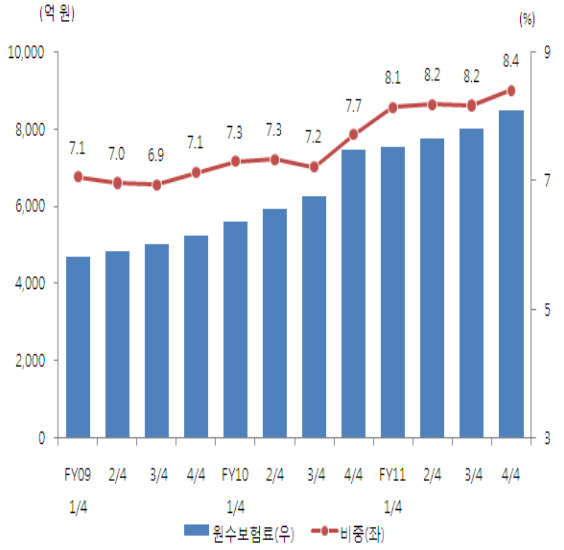
○ 재물보험은 신규 판매 확대가 지속됨에 따라 전년도에 비해 성장률이 16.2%p나 상승한 33.1%를 나타냈으며, 장기손해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늘어남.

〈그림 Ⅲ-12〉 종목별 원수보험료 증가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Ⅲ-13〉 재물보험 원수보험료 및 비중



주: 비중은 장기손해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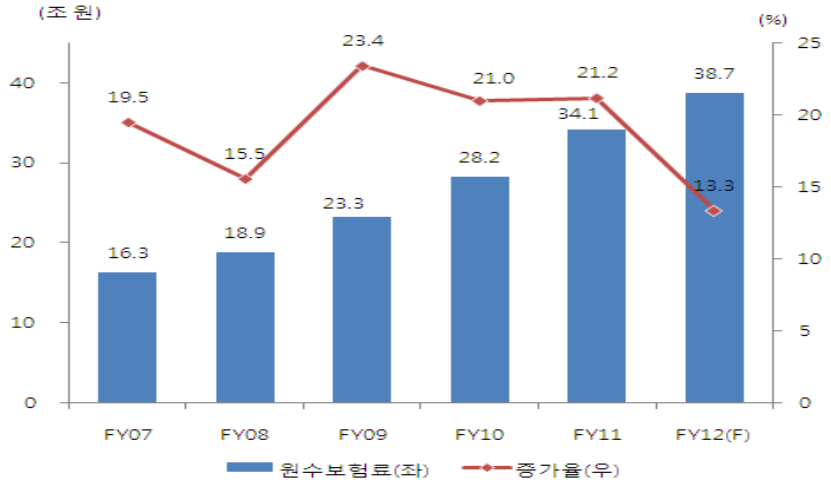
■ FY2012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저축성보험 호조세로 양호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나 전년도 고성장에 따른 기저효과로 증가율은 13.3%가 될 것임.

○ 저축성보험은 금리 경쟁력이 유지되고 전년도 고성장으로 계속보험료 유입이 증가함에 따라 26.1% 성장이 전망됨.

○ 상해 및 질병보험은 계속보험료 증가에 힘입은 완만한 성장세가 예상되나 신규가입 확대 요인이 존재하지 않아 성장률은 8.5%가 될 전망임.

○ 재물보험은 최근 2년 동안의 고성장에 힘입은 계속보험료 증가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20.1% 성장이 전망됨.

〈그림 Ⅲ-14〉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표 Ⅲ-6〉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단위: 억 원, %)

종목	FY2009		FY2010		FY2011		FY2012(F)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저축성	39,119	32.0	62,541	59.9	97,465	55.8	122,872	26.1
상해·질병	113,921	36.5	131,141	15.1	146,045	11.4	158,451	8.5
재물	18,635	2.9	21,791	16.9	28,993	33.1	34,833	20.1
기타[1)]	61,312	6.4	66,340	8.2	68,929	3.9	70,785	2.7
합계	232,988	23.4	281,813	21.0	341,432	21.2	386,941	13.3

주: 1) 기타에는 운전자, 통합형, 자산연계형이 포함됨.

3) 연금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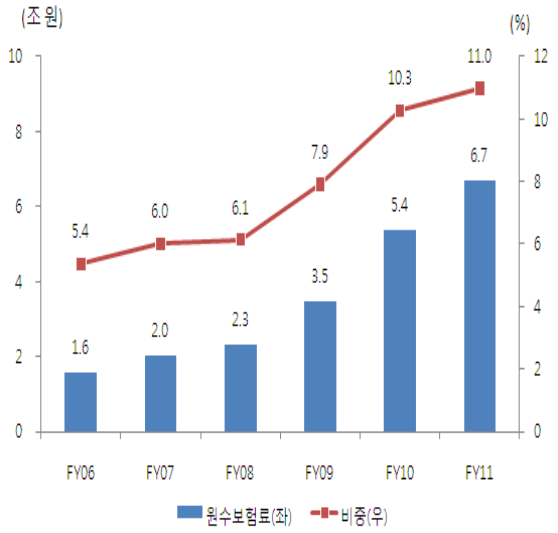
■ FY2011 연금부문 원수보험료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의 고성장으로 손해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1.0%로 늘어났으나, 성장률은 기저효과로 29.9%p나 둔화된 24.8%를 기록함.

○ 개인연금은 노후소득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연금저축[29)]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전년과 동일하게 분기별 30% 이상의 고성장을 지속함.

29) 조세특례제한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상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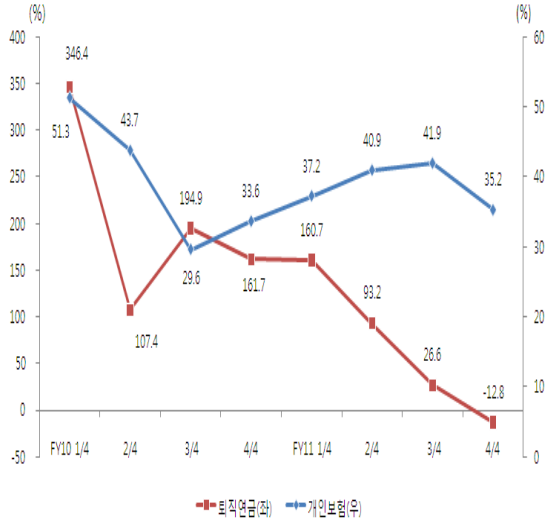
○ 퇴직연금은 퇴직보험 및 신탁의 효력기간 만료[30]와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한도[31] 축소 등의 영향으로 연 기준 34.6%의 고성장을 기록하였으나, 성장률은 기저효과로 전년에 비해 156.3%p나 낮아짐.

〈그림 Ⅲ-15〉 연금부문 원수보험료 및 비중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Ⅲ-16〉 연금부문 증가율 추이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FY2012 연금부문 원수보험료는 신규가입 부진과 기저효과 등으로 퇴직연금의 성장세 둔화가 예상되나 개인연금이 고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어 전체 21.5% 증가가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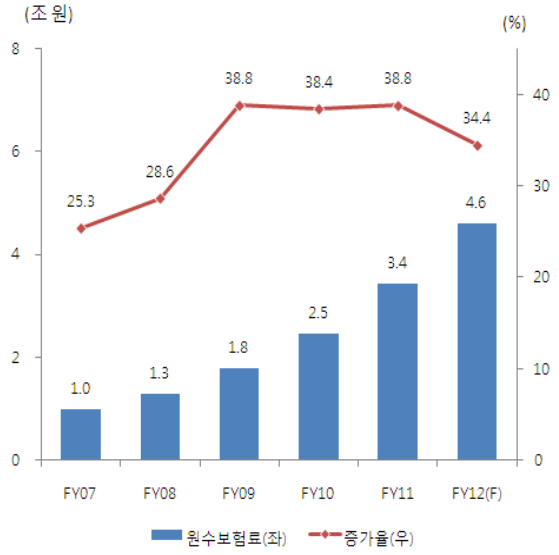
○ 개인연금은 노후소득 마련을 원하는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혜택 기간만료[32]로 개인연금의 소득공제혜택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어 34.4% 고성장이 전망됨.

○ 퇴직연금은 퇴직연금 및 신탁 효력기간 만료에 따른 신규가입 확대가 제한적일 것이고 전년도 고성장에 따른 기저효과도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어 성장률이 크게 둔화된 10.9%가 될 전망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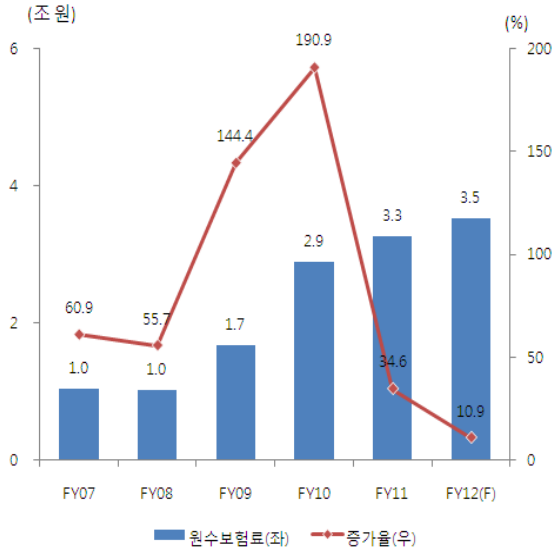
30) 2010년 말 퇴직보험 및 신탁의 신규가입·추가불입이 금지되고 세제혜택이 종료됨.
31) 손금으로 인정되는 사내적립 퇴직급여충당금이 매년 5%씩 축소되어 2016년에는 완전 폐지됨.
32) 「조세제한특례법」에서 소득공제혜택 만료일을 2012년 12월 31일로 명시함.

– 단, 2012년 7월'근퇴법 개정'등 정부의 퇴직연금 활성화 정책에 의한 시장 확대 요인은 여전히 존재함.

〈그림 Ⅲ-17〉 개인연금 원수보험료 전망



〈그림 Ⅲ-18〉 퇴직연금 원수보험료 전망



〈표 Ⅲ-7〉 연금부문 원수보험료 전망

(단위: 억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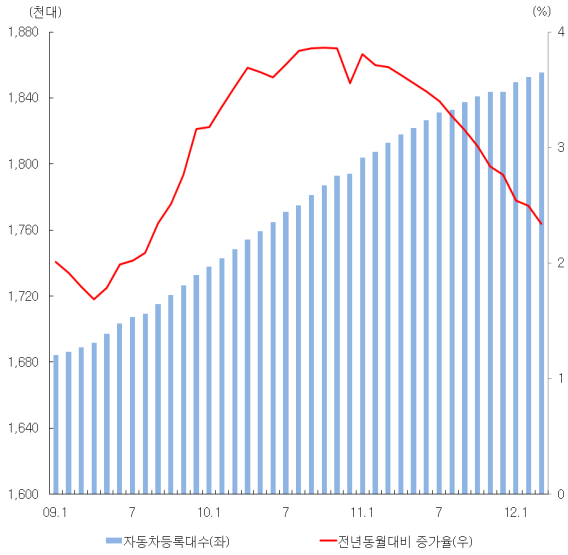
종목	FY2009		FY2010		FY2011		FY2012(F)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개인연금	17,841	38.8	24,697	38.4	34,273	38.8	46,072	34.4
퇴직보험	8,680	27.5	5,284	-39.1	835	-84.2	0	-100.0
퇴직연금	8,119	144.4	23,616	190.9	31,791	34.6	35,245	10.9
합계	34,641	50.7	53,598	54.7	66,900	24.8	81,317	21.5

4) 자동차보험

■ FY2011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등록대수 증가율 둔화, 담보별 요율 조정, 전년도 고성장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성장률이 5.1%에 그치면서 전년에 비해 5.5%p나 하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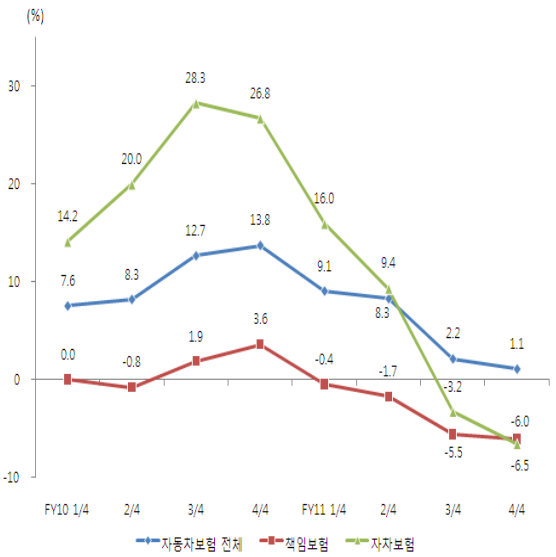
○ 경기둔화로 자동차 등록대수 전년동월대비 증가율이 2%대로 낮아지고, 담보별 요율 조정으로 책임보험과 자차보험의 보험료 인하 효과가 나타남에 따라 성장률이 둔화됨.

〈그림 Ⅲ-19〉 자동차 등록대수 및 증가율



자료: 국토해양부.

〈그림 Ⅲ-20〉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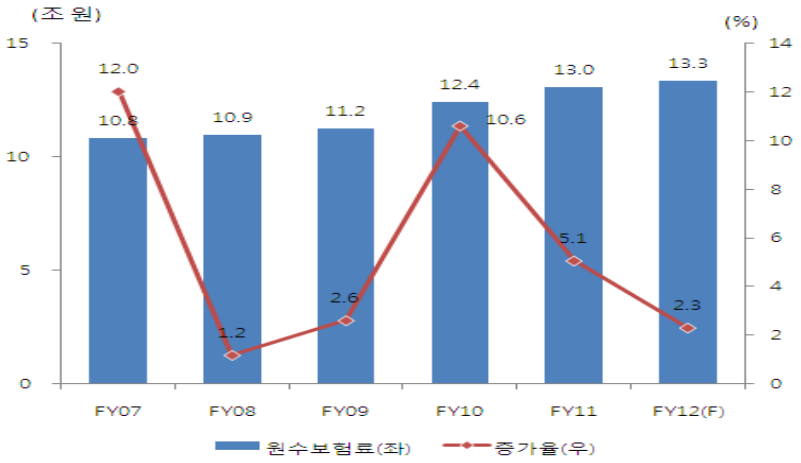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FY2012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경기둔화 및 보험료 인하 등의 영향으로 2.3%의 저성장이 전망됨.

○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율이 감소하고 손해율 개선으로 보험료가 인하됨에 따라 제한적인 성장이 예상됨.

○ 단, 차량고급화·대형화에 따른 담보 금액 증가, 50cc 미만 이륜자동차 보험가입 의무화 효과 등이 시장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임.

〈그림 Ⅲ-21〉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표 Ⅲ-8〉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단위: 억 원, %)

종목	FY2009		FY2010		FY2011		FY2012(F)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자동차	112,224	2.6	124,133	10.6	130,415	5.1	133,422	2.3

5) 일반손해보험

■ FY2011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화재보험을 제외한 전 종목의 증가세로 성장률이 전년에 비해 5.1%p나 높아진 12.7%를 기록함.

○ 화재보험은 화보법 개정[33]으로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은 늘어났으나 기존 계약이 다수의 보장을 제공하는 종합보험으로 전환됨에 따라 0.9% 감소하였으며, 전년에 이어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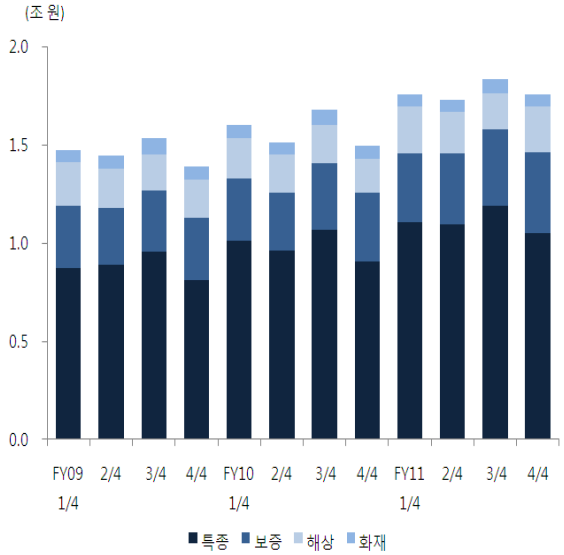
○ 해상보험의 경우 적하보험과 선박보험이 소폭 증가에 그친 반면 해양책임보험이 하반기 해양 플랜트 수주 증가에 힘입어 고성장함에 따라 지난 2년간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 12.7% 증가함.

○ 보증보험은 이행보증보험 및 통신 관련 신용보험 증가에 힘입어 16.1%나 증가하였으며, 성장률이 전년에 비해 9.7%p나 상승함.

○ 특종보험은 직원 복지증진을 위한 단체상해보험 가입이 증가하고 저렴한 보험료로 광범위한 보장을 제공하는 종합보험에 대한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12.5% 증가하여 두 자릿수 성장을 지속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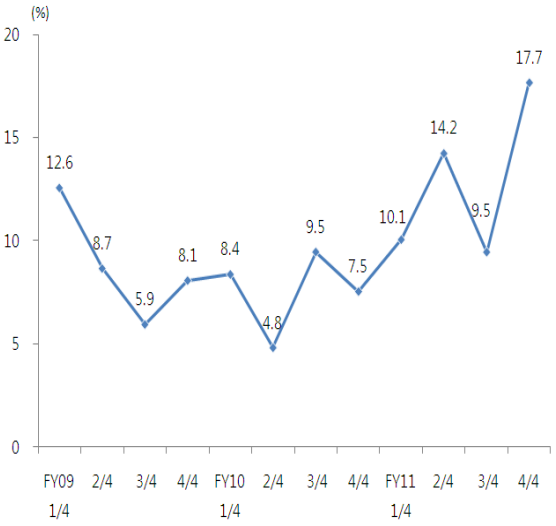
33)'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화보법」)'이 2010년 3월 개정되어 2011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는 특수건물의 범위에 공유건물, 다중이용업소, 운수시설이 추가됨.

〈그림 Ⅲ-22〉 종목별 원수보험료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Ⅲ-23〉 원수보험료 증가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FY2012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화재보험 저성장과 화재, 특종, 보증보험 성장세 둔화로 6.9% 증가가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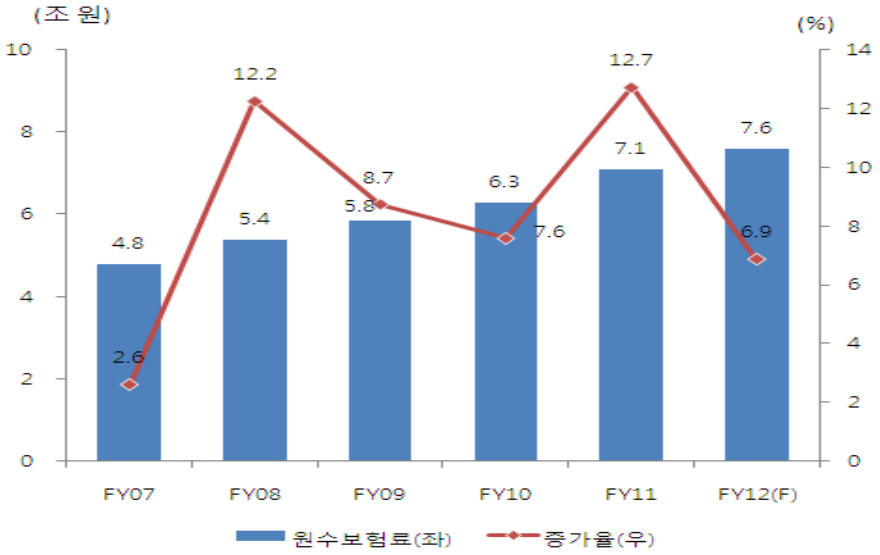
○ 화재보험은 뚜렷한 시장 확대 요인이 존재하지 않고 종합보험으로의 물건이탈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1.0% 감소할 전망임.

○ 해상보험은 적하보험과 선박보험이 세계 경기둔화로 제한적인 성장에 머무르고 해양책임보험이 기저효과로 큰 폭의 감소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어 1.3% 성장이 전망됨.

○ 보증보험의 경우 건설경기 회복세 지연에 따른 이행보증보험 성장세 둔화로 7.7% 증가가 예상됨.

○ 특종보험의 경우 건설투자 증가가 제한적인 만큼 기술보험 실적이 저조할 것이고 경기둔화로 상해보험과 종합보험 성장세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8.1% 증가가 전망됨.

〈그림 Ⅲ-24〉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표 Ⅲ-9〉 일반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전망

(단위: 억 원, %)

종목	FY2009		FY2010		FY2011		FY2012(F)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화재	2,763	-2.5	2,660	-3.7	2,636	-0.9	2,609	-1.0
해상	8,049	-5.4	7,721	-4.1	8,699	12.7	8,816	1.3
보증	12,287	6.6	13,074	6.4	15,172	16.1	16,344	7.7
특종[1)]	35,371	14.5	39,446	11.5	44,394	12.5	48,002	8.1
합계	58,470	8.7	62,901	7.6	70,901	12.7	75,772	6.9

주: 1) 특종보험에는 해외원보험, 부수사업, 권원보험이 포함됨.

〈표 Ⅲ-10〉 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전망

(단위: 억 원, %)

종목	FY2009		FY2010		FY2011		FY2012(F)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장기손보	232,988	23.4	281,813	21.0	341,432	21.2	386,941	13.3
저축성	39,119	32.0	62,541	59.9	97,465	55.8	122,872	26.1
상해·질병	113,921	36.5	131,141	15.1	146,045	11.4	158,451	8.5
재물	18,635	2.9	21,791	16.9	28,993	33.1	34,833	20.1
기타[1]	61,312	6.4	66,340	8.2	68,929	3.9	70,785	2.7
연금부문	34,641	50.7	53,598	54.7	66,900	24.8	81,317	21.5
개인연금	17,841	38.8	24,697	38.4	34,273	38.8	46,072	34.4
퇴직보험	8,680	27.5	5,284	-39.1	835	-84.2	0	-100.0
퇴직연금	8,119	144.4	23,616	190.9	31,791	34.6	35,245	10.9
자동차	112,224	2.6	124,133	10.6	130,415	5.1	133,422	2.3
일반손보	58,470	8.7	62,901	7.6	70,901	12.7	75,772	6.9
화재	2,763	-2.5	2,660	-3.7	2,636	-0.9	2,609	-1.0
해상	8,049	-5.4	7,721	-4.1	8,699	12.7	8,816	1.3
보증	12,287	6.6	13,074	6.4	15,172	16.1	16,344	7.7
특종[2]	35,371	14.5	39,446	11.5	44,394	12.5	48,002	8.1
전체	438,323	16.9	522,444	19.2	609,648	16.7	677,452	11.1

주: 1) 기타에는 운전자, 통합형, 자산연계형이 포함됨.
2) 특종보험에는 해외원보험, 부수사업, 권원보험이 포함됨.

IV 보험회사 경영과제

1. 개인연금 급성장에 따른 리스크 관리

■ 개인의 장수리스크 증대 및 올해 7월 새로운 경험생명표 적용[34]을 계기로 개인연금 수입보험료가 급증하고 있어 보험회사의 리스크 관리가 필요함.

○ 보험회사는 시중금리보다 높은 공시이율[35]을 제시하고 있으며, 최저이율(예: 10년 이내 2.5%, 10년 후 2.0%)도 보증하기 때문에 금리리스크에 노출됨.

■ 최근 급증하고 있는 즉시연금보험[36]은 일시납 형태로 보험료가 들어오기 때문에 금리역마진에 대한 우려와 RBC 요구자본 부담이 커서 더욱 정교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함.

○ 건당 보험료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적립식(월납)에 비해 자산운용과 지급여력에 대한 부담이 큼.

○ 보험회사가 즉시연금에 대해 공시이율산식에 따른 변동금리를 제공하더라도 실제 자산운용수익률에 비해 높은 금리를 제시한다면 금리역마진 부담이 커질 수 있음.

■ 보험회사는 저금리 상황이 지속될 경우에 대비하여 개인연금상품에 대한 중장기적인 자산운용 방향, 공시이율 체계 및 최저

34) 늘어난 기대여명을 반영하여 연금급여를 산출하면 연금액수가 줄어들 수 있으므로 개정 전에 가입하려는 수요가 존재함.

35) 2012년 6월 기준 생명보험회사의 저축성보험 평균 공시이율은 4.91%로 회사채수익률(3년, AA-) 대비 약 1.04%p 높은 수준임(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12. 6. 27일자).

36) 즉시연금 보험료는 2008년 3,306억 원에서 2011년에는 2조 3,798억 원으로 단기간 내에 급등하였음(조세일보 2012. 7. 16일자).

보증금리에 대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재무건전성, 리스크관리 측면을 고려하여 공시이율이 산출되고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사전예방 중심의 보험사기 관리

■ 보험사기 피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고 소비자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보험사기 관리의 패러다임을 사후적발 방식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최근 보험제도와 상품을 많이 이해하는 보험설계사 및 병원관계자가 보험가입자와 결탁하면서 보험가입 시점부터 여러 보험회사의 다수 보험계약에 집중 가입하고, 고의(허위) 보험사고로 고액의 보험금을 편취하는 경향이 있음.

○ 보험금이 청구된 사고건에 대한 사후조사는 흉포화·전문화·조직화된 보험사기에 적시 대응하는데 한계를 지님.

○ 특히, 보험사기를 사전적으로 방지하고자 하는 노력 없이 보험금 지급단계에 이르러서야 보험사기에 강경 대처하는 것은 보험회사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만 조장함.

■ 따라서 보험회사는 상품개발, 판매, 인수심사의 과정에 내재된 보험사기 유발요인을 집중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첫째, 판매상품의 보험사기 발생 유형·빈도·심도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 둘째, 타사의 보험가입 내역을 포함한 담보별 누적 가입한도를 피보험자의 다양한 위험속성을 반영하여 설정하고 단기간 내 특

정 담보 집중가입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셋째, 판매자의 판매상품, 보험금지급 및 사고발생 등에 대한 정보를 통합,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3. 저금리 대응 강화

■ 최근 중앙은행은 0.25%p의 금리인하를 전격적으로 단행하여 기준금리를 3.0%로 결정함.

○ 그동안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 우려와 함께 금리정상화가 이슈였으며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낮게 봄.

-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높다는 것도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낮게 본 이유 중 하나였음.

■ 금리 인하는 통상 보험회사의 성장성과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함.

○ 일반적으로 금리 인하는 보험회사의 자본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재투자위험과 금리에 민감한 보험수요의 위축을 초래하는 경향이 있음.

○ 다만, 최근 단기금리와 장기금리 간 스프레드가 크게 축소된 상황으로 기준금리 인하가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함.

■ 그러나 향후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어 저금리가 지속될 경우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보험시장의 성장이 연금 등 저축성보험의 매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보험회사가 노출될 금리 위험에 대한 면밀한 관찰이 필요함.

- 최근까지 보험회사들은 높은 공시이율을 제시하는 고금리 저축보험판매에 치중함.
- 위험관리에 우위를 점하고 있는 보험산업의 경쟁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성 상품 다양화를 지원해야 함.

○ 상품개발 프로세스 및 준비금 적립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함.

■ 다른 한편으로 인플레이션 가능성을 염두에 둘 때,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공통 영역인 실손보험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의료서비스 원가 등이 예상 외로 크게 오를 경우 실손형 생존보장 상품의 갱신보험료 급등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연한 상품 개발 허용과 더불어 위험관리 프로세스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

4.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노력

■ 상반기 변액연금의 수익률 논쟁을 계기로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도가 급락하여 생명보험시장의 주요 성장축인 변액보험의 판매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 변액연금의 상품성과 투명성에 문제가 있음이 부각되어 소비자 신뢰가 저하됨.

■ 변액보험 소비자에 대한 정보공시와 관련한 개선방안 제시로 논란은 일단락됨.

○ 상품수익률 등 공시정보를 개선하고 판매자의 설명의무를 강화

하는 방향으로 공시제도 개선안을 제시하고,

○ 향후 협회의 공시시스템 개편과 개선안을 반영할 관련 규정 개정이 예정된 상황임.

■ 그러나 변액연금을 포함한 저축성보험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임.

○ 소비자단체 등은 이번 기회에 변액보험에 대해 자본시장법을 전면 적용할 것을 주장함.

■ 공시 개선으로는 보험회사와 소비자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으므로 추가적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함.

○ 보험산업은 보장서비스의 대가와 투자서비스의 대가를 구분하고 있으나, 소비자는 두 서비스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상품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음.

○ 이번 공시 개선은 불충분한 정보 제공의 틀을 개선하는 데 두고 있으나, 이것만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은 어려움.

■ 상품의 완전한 판매 및 판매 이후 지속적으로 정확하고 알기 쉬운 정보 제공 등 상품과 관련된 서비스 향상은 물론, 사회적 책임을 적극 이행함으로써 보험회사의 전반적인 이미지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지속적으로 가입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고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는 한편,

○ 보험회사의 전반적인 이미지 제고를 위해 선제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필요가 있음.

총 괄
윤성훈(선임연구위원)

경제 · 금융
경제총괄 윤성훈(선임연구위원)
세계경제 이정환(선임연구원)
실물경제 채원영(연구원)
금융시장 이경아(연구원)

보험산업
보험총괄 전용식(연구위원)
생명보험 김세중(선임연구원)
손해보험 최 원(선임연구원)

CEO Report 2012-01
FY2012 수입보험료 전망

발 행 일 2012년 8월
발 행 인 김 대 식
발 행 처 보 험 연 구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인 쇄 소 경성문화사
대표전화 786 - 2999

본 자료에 실린 내용에 대한 문의는 보험연구원 동향분석실(☏3775-9016)로 연락하여 주십시오.